

10월 2일 가해자 면담 대화록 - 1차  
보낸날짜 2003년 10월 13일 월요일, 새벽 04시 53분 50초 +0900 (KST)  
보낸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에휴... 녹음을 했어야 하는 건데... ㅠ  
기억력도 나쁘데 억지로 기억해낼려니 쉽지가 않군요.  
일단 대략 정리를 1차로 해보았습니다.  
감자언니께서 많~이 보충을 해주셔야할 것 같아요 ^^;

감자언니께서 보충해주신 다음에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죠.  
- 난리 -

=====  
부탁 한말씀..  
보낸날짜 2003년 10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47분 55초 +0900 (KST)  
보낸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uni-action@hanmail.net>

감자입니다.

난리가 가해자면담록을 작성해 올린 것을 보니 더더욱 미안해지는군요.  
백서목록의 10번항인 '가해자의 문제점'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했으나  
매우 어려웠습니다.

글을 써본 경험이 일천한 이유도 있겠고 저의 능력에도 문제가 있는듯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시간나는대로 써름 했지만 별무소득이었습니다.  
지금와서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그 부분을 난리와 병아가 정리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면담내용을 보충하는것만 할 수 있을것 같아요.

다시 한번 미안함을 전하며.. 이해를 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유예요  
보낸날짜 2003년 10월 13일 월요일, 낮 12시 24분 39초 +0900 (KST)  
보낸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uni-action@hanmail.net>

난리가 정리한 '가해자 면담보고'에 몇가지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하세요.

=====  
백서 2번 - 비대위의 기본 원칙  
보낸날짜 2003년 10월 13일 월요일, 밤 10시 01분 37초 +0900 (KST)  
보낸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함께 받는이 <9jydh@hanmail.net>

에구구...  
정신없이 써서 말이 맞는지나 모르겠군요. ㅠ  
어튼 병아언니와도 얘기했지만,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단 대략 정리하고  
다시 탈고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그런 의미에서 일단 올려요~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가감없이 해주시어요~

- 난리

=====  
나! 자유요~  
보낸날짜 2003년 10월 14일 화요일, 새벽 01시 25분 51초 +0900 (KST)  
보낸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uni-action@hanmail.net>

비대위 동지들! 글 쓰느라, 기억들 끄집어 내느라. 수고가 많지요. 해해  
난리글, 병아글, 잘 하고 있어요, 칭찬.. 박수 짹짹!

우리만의 언어, 우리만의 정확한 표현을 찾아내는 건 아주 중요하고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건규정이나, 사건을 정리하는데 있어서는 명확해야 하겠지요.

김○○ paper에 보면, 이젠 불로건지 뭔지 하던데..  
'난 이땅의 여성이다'란에 '강위원 성희롱 사건'을 접하며 고민되었던 부분들이 명쾌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표현된 백인위 글들이  
좀 있을 겁니다.  
참조하시면,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정병도 사례는 강위원 사례와 꺾끔 유사하지요. 정병도 사례에 대한 백인위 입장글을 보면 많은 참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회의를 통해서 이상하게(? ㅋㅋ) 쓰여진 글들은 모두 수정, 보완을 거쳐겠지요.

일단 생각나는대로 정리하고 모두 함께 모여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하면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난 이제 잠 잘건데, 동지들은 뭐하고 있을까?

=====  
드디어... 모두 완성.. ㅠ-;;  
보낸날짜 2003년 10월 14일 화요일, 새벽 01시 32분 07초 +0900 (KST)  
보낸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uni-action@hanmail.net>

난리가 올린 원칙적 입장이 제대로 반영이 제대로 안된거 같아서... ㅠ고 수준이 아니라 다시 써야 할 지경인 듯 합니다. ㅠ-;;  
그 문제의 11번은.. 아무리 정리하려고 해도... 열받아서 쓸 수가 있어야지요. ^^;;

한참이나 매달리고 있었는데 별로 진전이 없어서 다른 두가지 내용을 동시에 정리하고 있어서 덕분에 나머지 두가지를 동시에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얼핏 봐도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고쳐 나가면 되겠지요.

무엇보다 걱정은 문제의 11번인데.. —;

암튼 우선 올리니까 읽고 사건을 정리하면서 쓸 내용으로 부적합한 것인지, 빠진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보충했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가차없이 얘기해주세요요~ ^^

제 한계를 여러분 앞에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 참.. 쩌.. 암튼.. 부끄럽사옵니당..

=====

백서글 초안들을 전여대협 메일로도 보낼게요.

보낸날짜 2003년 10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21분 26초 +0900 (KST)

보낸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저 말고도 전여대협 다른 동지들이 같이 고민할 수 있겠어요.

전여대협 동지들의 고민은 제가 총화해서

다시 비대위 메일에 올리겠습니다.

- 난리

=====

백서 6. 강위원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진행 경과 2 - 비대위 구성 이후 (초안)

보낸날짜 2003년 10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36분 21초 +0900 (KST)

보낸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일단 정리해보았구요.

아래 (별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보고문이나 메일(다음메일에서 직접 출력한것) 등을 첨부하여 정리하자고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후 편집과정에서 참고할 페이지를 적어놓아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 난리 -

6. 강위원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진행 경과 2 - 비대위 구성 이후 (시간순 정리)

9월 16일

<강위원 성희롱 사건 대책모임>, 전여대협으로 강위원 성희롱 사건을 신고

대책모임 2인과 전여대협 1인이 참가.

강위원 성희롱 사건일지를 공유하고 함께 해결할 것을 결의하며 기초적인 해결 원칙에 합의. 전여대협에서 '강위원 성희롱 사건 해결 계획 초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성폭력에 대한 일반적 교양자료를 대책모임에 전달하기로 함.

9월 19일

전여대협, 대책모임에 성폭력 교양자료 전달.

9월 22일

전여대협, '강위원 성희롱 사건 해결 계획 초안'을 대책모임에 발송

9월 26일 (별첨)

<강위원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회의 보고문 참고

10월 1일 (별첨)

비대위, 강위원과 만나기로 약속.

그러나 가해자에게 정확한 시간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아 약속이 무산됨.

10월 2일

가해자 면담

자세한 내용은 가해자 면담록을 참고

10월 5일

가해자가 공개사과문을 비대위 메일(uni-action@hanmail.net)로 보내기로 약속한 날이었으나, 가해자로부터 아무런 메일이 오지 않음.

10월 6일 (별첨)

비대위, 가해자로부터 아무런 메일이 오지 않아 가해자에게 메일을 보냄.

비대위, 가해자에게 몇 차례 연락했으나 계속 전화기가 꺼져있는 상태여서 연락이 안됨.

10월 8일 새벽 2시 46분경

가해자, 10월 6일에 비대위가 가해자에게 보낸 메일을 확인함.

10월 8일 새벽 3시 18분경 (별첨)

가해자, 비대위로 메일을 보냄.

10월 8일 아침 ?시경

가해자 지인 A, 망월동에서 쓰러져있는 가해자를 발견하여 응급실로 후송.

발견 당시 가해자 옆에는 가해자가 먹은 것으로 추측되는 콘택600 결빙이 60여개 들어져있고 가해자 상의 주머니에서는 과도와 유서 등이 발견됨.

A가 응급실 의사와 얘기하고 있는 동안 가해자가 사라짐. 가해자는 응급조치를 받지 않은 상태였음.

10월 8일 저녁

비대위 회의 진행

참가자 : 비대위3인(대책모임2인, 전여대협1인), 피해자

논의 내용

- 가해자와 관련된 상황 공유

- 원래의 사건 해결 계획을 접고 <강위원 성희롱 사건 백서>를 정리하기로 함.

- 백서를 내고 나서 비대위를 해소하기로 결정.

10월 13일 밤 10시 30분 현재까지 가해자 연락 두절 (←이 부분은 백서를 내기 전에 다시 정리될 수 있겠죠)

=====

면담록 보충했습니다

보낸날짜 2003년 10월 14일 화요일, 낮 12시 03분 34초 +0900 (KST)

보낸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uni-action@hanmail.net>

보충이라고 해야 그리 많지 않네요.  
난리가 워낙 세세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별로 할게 없었어요.  
이후 더 기억나는거 있으면 첨가하는 것으로 할게요

할, 봐야죠. 최종 정리하려면.  
감자.

\*\*진한 녹색 글씨가 감자꺼라는거..아시죠?

-----  
가해자 면담록 - 감자정리에 '자유' 덧붙임  
보낸날짜 2003년 10월 14일 화요일, 낮 1시 01분 13초 +0900 (KST)  
보낸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uni-action@hanmail.net>

'발집' 부분에 덧붙을 붙입니다.

-----  
백서 - 4. 성희롱 사건의 성격규정  
보낸날짜 2003년 10월 14일 화요일, 낮 1시 12분 27초 +0900 (KST)  
보낸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함께 받는이 <9jydh@hanmail.net>

의견 있으면 주세요~ ^^  
- 난리 -

#### 4. 강위원 성희롱 사건의 성격규정

- 1) 장기간에 걸친 언어적, 신체적, 정신적 성희롱이다.
- 2) 친밀함과 동지애를 악용한 성희롱이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감옥에 있던 1997년부터 편지를 꾸준히 보냈고 면회를 가고 책을 보내면서 연락을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  
해자는 '동지적 믿음'과 '동지적 리더'를 통해 가해자의 감옥생활을 챙겨주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피해자와 가  
해자는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

가해자는 친밀함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손을 잡고 깎지를 끼며 원치 않는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등 지속적인 성희롱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동지애적인 의리를 다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의도를 악용하여 원치 않는 신체접촉과 계속적인 언락 등을 해  
은 것이다.

결국 이런 친밀함과 동지애를 악용한 성희롱으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운동사회와 동지에 대한 심각한 불신과 질책을 받게 되었다.

- 3) 가해자는 성희롱을 '남녀간의 애정부재'로 치부하고, 피해자를 '스토커'로 매도함으로써 가해행위를 정당화하고 2차 성희롱을 가  
했으며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인간적 모욕감을 주었다.

가해자는 성희롱을 저지르는 과정에서도 스스로의 언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가해사실에 대한 인정과 반성은커녕 '피해  
자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다님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성희롱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피해자에게 가해자는 "내가 너하고 결혼해야되니?" 라는 식으로 응대했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지인(가해자의 지인)과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XX(피해자)는 스토커다' 'XX(피해자)는 마녀다'라고 말하고 다녔다.

이런 가해자의 행동은 자신의 성희롱 가해행위를 자신과 주변사람에게 정당화, 합리화하는 것이었다. 특히 가해자는 피해자를 '스토  
커'로 매도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한다'며 얘기하고 다님으로써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새우는데 피해자를 이용한 것이  
다.

또한 가해자는 그동안 피해자가 동지애적 의지로 가해자의 감옥생활을 챙겨주었던 그 모든 시간과 노력을 강위원이라는 '남자'를  
만나기 위한 것으로 치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 4)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가해자는 모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친구들을 비롯해 여러 여성들이 있는 자리에서 "마스터베이천이나 좆나 하고..."라는 말을 함으로  
써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모욕감을 주었다. 이는 같은 술자리에 있었던 여성들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것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여성들 성적 대상으로 폄하하는 인식을 드러내었다. 피해자의 친구들은 가해자의 이와 같은 성적 대상화로 인해 모욕감을 느낀 것  
이었다.

#### 5) 가해자는 운동사회에 성폭력적인 문화를 조성해왔다.

가해자는 운동사회 내 성폭력에 대해 얘기하는 피해자에게 '동지를 매도하는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함으로써 운동사회 내 성폭력  
에 대한 형편없는 인식을 드러내었고, 운동사회 성폭력을 공론화하려는 피해자의 의도를 묵살하였다.

특히 가해자는 학생운동사회에서는 영향력 있는 존재이며, 민족민주운동사회에서는 진보적 인사로 인식되는 사람이다. 이런 가해자  
에 의한 성희롱은 그 자체로 더욱 폭력적이었으며, 성희롱 가해의 과정 및 그 이후의 과정에서도 가해자는 잘못을 인정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여전히 강연 등 대외적 활동을 해음으로써 운동사회에 성폭력적인 문화를 조성했다.

#### 6) 가해자가 평소 '여성'에 대해 진보적이거나 진보적이라고 하는 사람임을 스스로 얘기하고 다녔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  
[RE]백서 - 4. 성희롱 사건의 성격규정  
보낸날짜 2003년 10월 14일 화요일, 낮 1시 35분 05초 +0900 (KST)  
보낸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강위원 성희롱 사건은 운동권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유형의 전형을 보여준다.

강위원 성희롱 사건은 '친밀감을 이용한 성희롱' '운동권내 권력구조를 이용한 성희롱'이 핵심이다.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한 4월 14  
일도 '정재욱의 당선'을 빌미로 피해자의 심리를 자극했다. 피해자는 그 당시 '동지애'를 느꼈고, 강위원은 그것을 이용해서 성희롱  
했다. 즉 피해자는 '정재욱의 당선'으로 가해자가 전화해 그 자리에 나간것이다.

'친밀감을 이용한 성희롱' 부분은 끝 정리가 되었는데, '운동권 내 권력구조를 이용한 성희롱' 이 부분이 미약하다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해 주시면 좋겠네요. 중요한 부분이니깐요

그리고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어감상의 차이가 있어서  
'주위를 배회했다는 표현' '스토커 표현'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자유

-----  
스토커 부분 관련  
보낸날짜 2003년 10월 14일 화요일, 낮 2시 09분 32초 +0900 (KST)

보낸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자유언니, 스토커 부분은요 그대로 하면 좋겠어요.  
언니의 친구들에게는 스토커라고 했는지 주변을 배회한다는 표현을 썼는지는 모호하더라도  
강위원의 지인에게는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하지만 약간 다듬을 필요는 있겠죠.  
다시 다듬어서 올릴게요.

그리고 권력 부분은 사실 정리하다가 좀 지지부진해서 빼고 일단 올렸었는데... ^^;  
다시 정리해서 올릴게요.

-난리

=====  
사건일지에 대한 의견

보낸날짜 2003년 10월 14일 화요일, 오후 4시 12분 00초 +0900 (KST)  
보낸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별건 없구요..  
자주색 글자로 표시해놓았어요. ^^  
-난리

=====  
100인위원회 '백서'

보낸날짜 2003년 10월 14일 화요일, 오후 5시 25분 28초 +0900 (KST)  
보낸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uni-action@hanmail.net>

100인위에서 정리한 '백서'가 나왔습니다.  
자유가 일단 2권을 샀습니다.  
필요한 분은 자유에게 연락하세요~

실악산 대청봉에는 오늘 첫눈이 내렸답니다.  
서울도 내일 7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네요.  
춧추위에 당하면 안됩니다.  
겨울 내내 견뎌내기 힘들어집니다.  
모두들 뽕뽕 싸매고 따스하게 지내십시오.  
특히 객지에서 고생하는 난리는 더 많이 신경써야 해요.

팬시리 서러워지는 계절이 왔습니다.  
서로 보듬어줄까요, 아니면 판매 가서 알아볼까요?

=====  
백서 - 9. 가해자 강위원에 대한 비대위의 요구안 및 근거 (초안)

보낸날짜 2003년 10월 14일 화요일, 저녁 7시 29분 43초 +0900 (KST)  
보낸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자유 언니, 드더 사시었군요~~~ ^^

정말 오늘은 갑자기 추워졌네요. 예구..  
그래도 전 추위를 별로 안타니 다행이에요.

병아언니나 감자언니는 추위를 많이 탈 거 같이 보이는데..  
자유언니야 뭐~~~~ ~~~;

여튼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병아언니가 정리한 11번에 대해 - 난리

보낸날짜 2003년 10월 14일 화요일, 저녁 7시 39분 49초 +0900 (KST)  
보낸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언니, 잘 쓰셨어요~  
실은 아~까 읽어보긴 했었는데,  
제가 맡은 부분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지금 올려용..

별 의견은 없구요,  
다만 1번 백서를 내면서 내용과 약간 겹쳐질 거 같은 내용이  
언니 글 마지막 부분에 있긴 한데..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정리하면서 약간 다듬으면 어떨까 해요.

아직 1번을 정리 안했는데요,  
1번 정리하고 나서 맥락을 살펴보면  
언니가 쓴 11번 글에서 제일 마지막 문단을 1번에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더라도 여튼 아~주 약간만 다듬어도 괜찮을 거 같아요.

그리고 토씨 같은거 한두개 정도만 바꾸면 될거 같구요.  
그것도 제가 나중에 총 정리하여 편집할때 바꾸죠.

정말 별 의견 아니죠? ~~~; ㅋㅋ  
언니가 잘 쓰셔서... 저야 뭐... ^^  
- 난리

=====  
난리아~

보낸날짜 2003년 10월 14일 화요일, 밤 10시 04분 51초 +0900 (KST)  
보낸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uni-action@hanmail.net>

너는 내게 힘을 주는 나의 카드다~ T..T(감동의 눈물) 우헤헤~

암튼 우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기본으로 해서 정리를 했는데 많이 부족해.  
난리 때문에 힘 받아서 다시 한번 심호흡하고 써볼라구 한다~ ^^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저 내용을 틀로해서 살도 붙이고 정리도 하고.  
암튼 백위인 백서를 내일 ○○이로부터 받을거니까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되겠지?  
물론!!!

네가 수정을 해준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지만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미안해서라도 내가 부지런히 해야겠당~

암튼 우리 모두 조만간 만나게 어떨까?  
우선 초안에 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필요할거 같아서..  
오호호~ 물론 보고 싶거나 술이 고파서가 절대!! 아니야~~ ^o~;;

=====  
○○아~  
보낸날짜 2003년 10월 14일 화요일, 밤 11시 04분 55초 +0900 (KST)  
보낸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uni-action@hanmail.net>

부탁이 있어~  
난리가 지적인 본명이 나온 부분은, 이번에 새롭게 첨가된 되면서 실명이 들어간 부분이기도.  
내가 자의적으로 가명으로 바꿀 수 없어서 그냥 뒀어. 왜냐하면 실명이 나온 사람들 중에 혹시라도 내용상의 가명과 중복될까봐.  
네가 확인해서 고쳐달라고 부탁한다는게 깜박했네.

그리고 읽다보면 내가 보충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  
네 의견은 어떤지, 그리고 동의하면 정리해서 올려주렴~

=====  
[RE]○○아~  
보낸날짜 2003년 10월 15일 수요일, 밤 12시 04분 41초 +0900 (KST)  
보낸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비대위 메일에 올려놓은 최종사건일지 정리가 있어. 물론 너가 정리한 것과 차이가 있구.  
메일에 올려진 사건일지는 가나다, 이런순으로 모든 사람들이 정리가 되었고, 그 부분도 정리가 되어 있거든... 내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사건일지 정리하면서 왜 내가 비대위에 올려놓은 사건일지로 정리를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네, 혹시 깜빡한 거 아니니?  
그리고 4월 14일 내가 방을 나온 상황은 내가 처음 정리한대로 했으면 좋겠구(사실 불일 말도 없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구, 현재 상  
태도 핵심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 모든 상황을 다 옮길 수도 없구..), 또한 6월 26일 강위원과의 대화 또한 마찬가지로야.  
(다 옮길려면 끝이 없고, 서서히 강도를 높이면서 이야기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애초 내가 정리한대로 했으면 하는 마음이야. 물론  
다 기억도 안나고 또한 생각하고 싶지도 않구..) 문맥상 크게 지장이 있으면 논의해 볼 수 있겠지.

어제 너가 사건일지 정리를 한 걸 보고, 내가 뒤에 덧붙인 부분이 있다.  
9월20일 반성문 부분부터 정리했으니 참고해. 다시 첨부파일로 보낼게..  
네가 교정한 것과 비교해서 정리했으면 하고, 위쪽에 몇가지 정리한 부분은 그대로 했으면 하고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네..  
이번에 내가 보내는 파일에 너가 정리한 것을 덧붙여서 정리하면 어떨까?

사건일지 다시 올린다~~~

=====

으으으~~ 전 술이 고파요.. <난리>  
보낸날짜 2003년 10월 15일 수요일, 새벽 01시 04분 02초 +0900 (KST)  
보낸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좋아요 우리 조만간에 만나요~  
병아언니는 술이 고퍼거나 그런 것이 아닐지 몰라도 (암... 모르는게야...홍홍홍~)  
전 술이 무자케 고파용... ^^;;  
농담이구요 (농담속에 진실이 있는거 아시죠? 해해)  
초안을 정리하고나면 같이 의견들을 공유할 자리가 필요할 거 같아요.  
혹시 변하는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런것도 공유하구요

16일 정도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아... 목요일이군요. 안되겠넹~  
전 금요일은 안되지 싶은데요..  
별두 좀 그렇고... 정 시간이 안되면 약속을 옮길수는 있겠지만요.  
그나마 얼른 만날려면 내일이 켈 낫겠네요.

어른 언니들이 편찮은 시간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병아 언니께서 사건일지를 정리해주셨는데요..  
해결일지 1과 어떻게 분리를 해야할지... 계속 고민이 되네요.  
그냥 사건일지와 해결일지1을 합칠까...(제목 말이죠)  
조금 더 고민해보고 다시 얘기해요.

참! 근데... 병아 언니!  
아부가 넘 심한거 아네요? ㅋㅋ  
병아 언니의 아부 속에서... 일 시켜먹으려는 욕심이 보여... 카카카~

그럼 다들 수고하세요~

=====  
백서 - 10. 가해자의 자세와 문제점 (초안)  
보낸날짜 2003년 10월 15일 수요일, 새벽 02시 39분 13초 +0900 (KST)  
보낸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나중에 일괄적으로 정리할 때  
참고내용은 주석을 달거나 괄호를 쳐서 표시를 하고  
참고자료들은 일괄적으로 모아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아래 자료는 그런 부분은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읽어보시고  
의견 주세요~  
- 난리

=====

시간만들기

보낸날짜 2003년 10월 15일 수요일, 낮 3시 40분 15초 +0900 (KST)  
보낸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데 <uni-action@hanmail.net>

한 번 만나자는데에는 이견이 없으므로  
얼른 얼른 만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자유,병아,갑자는 이번주 금요일(17일)도 가능하지만  
난리가 어쩐지 모르겠네요.

17일이 안된다면 담주 월요일(20일)이나 금요일(24일)로  
넘어가 만나자고 세사람이 시간을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난리의 시간은 어디를 해매고 있는가?  
어디에 머물 수 있는가?  
답변바랍니다.

갑자.

=====

백서 - 12.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 (초안)  
보낸날짜 2003년 10월 15일 수요일, 오후 4시 36분 31초 +0900 (KST)  
보낸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데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에휴... 항상 그렇듯 처음과 마지막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백서의 마지막에 들어갈 글을 일단 완성했습니다.  
보시고 의견주십시오~

그리고 병아언니가 쓴 11번 글과 제가 쓴 12번 글이 계속 고민되는데요..  
11번 글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백서 1. 백서를 정리하며 에 들어갈 내용이  
실은 11번과 12번에 다 들어가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할지 난감해졌습니다요~ \_:\_;;  
에구~~

나머지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몇몇 글들은 차차 하겠습니다.

또..  
시간은요..  
17일날 어떨지 정확히 모르겠사워요~  
오늘 안에 답변을 드리지요..  
제 시간은 아직도 해매고 있네요~ ㅋㅋ  
- 난리 -

12. 강위원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

비대위는 강위원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해오는 과정에서 몇가지 지점이 심각하게 고민되었음을 밝힌다. 강위원 성희롱 사건을 바라보는데 있어서 몇몇 사람들이 드러낸 인식의 문제점들, 그리고 여전히 운동사회 내 성폭력에 대한 폐쇄적인 시각이 그것이다.

강위원 성희롱 사건을 두고 참으로 많은 말들이 있었다.

'정말 피해자와 가해자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가?'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은가?' '피해자가 강위원을 좋아하지 않았는가?'

혹은 '무슨 근거로 강위원을 매장하려고 하는가?' '요구안이 과도하다' '실명공개를 해서 뭐하겠다는건가?' 등등 이 사건의 뒤편에서는 수많은 말들이 오갔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비대위의 원칙, 진행경과, 각종 활동과 입장 등을 통해 많은 설명들을 했기에 다시 반복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한가지! 이 사건을 바라보는 키워드를 명확히 해야한다.

성희롱 사건을 바라보는 키워드는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피해자'이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성희롱이라는 믿기 어려운 피해를 당한 이도 피해자이며, 가해자로부터 인간적 모욕과 무시를 받고 못 사람들로 부터 암묵적 제재를 당하면서도 기어이 성희롱 사건을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올린 원동력도 피해자로부터 나왔다.

아직도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은가'라거나 이 사건을 치정사건으로 바라본다면, 정말 묻고 싶다.

"그렇게 바라보기 전에, 한번이라도 피해자의 의지를 진지하게 새겨본 적이 있는가?"

"과연 피해자가 무엇을 원했다고 생각하는가?"

그 어떤 피해자도 처음에 자신이 '성희롱'을 당했다고 스스로 판단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우리 사회는 성희롱 피해자에게 너무나도 많은 짐을 떠안기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그 어떤 피해자도 성희롱 피해를 당하기를 원하는 피해자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비대위와 함께 원칙을 굳건히 하고 기나긴 해결의 노정을 걸어왔다.

성희롱 사건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이런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기를 진심으로 권한다.

그리고나서 이 백서를 읽은 모든 이들이 피해자의 용기와 결단에 지지와 박수를 보냈으면 한다.

운동사회 내 성폭력은 오랜시간동안 무수히 존재해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되어왔다. 특히 지난 2000년 말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가 무수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곳곳이 활동해오면서 운동사회 성폭력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굳게 다문 입속에 쫄쫄 감춰둔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이 성희롱 사건을 접해보면서 비대위는 여전히 운동사회에 존재하는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폐쇄적인 사고들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었다.

모든 사회현상에 대해 그 본질을 파헤치고 변혁하려는 '진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정작 성희롱 사건에 있어서는 단지 '두사람간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인식하면서 그 본질을 애써 외면하는 인식도 있었다. 왜곡된 '동지애'로 가해자를 무턱대고 믿는 식의 자세(그러면서도 피해자에 대해서는 일단 불신하는 자세)도 있었다. 사건의 공개 자체에 대한 거부감 또한 상당히 존재했음을 밝힌다.

생각해보라.

운동사회 성폭력을 덮어두기에 급급한 모습이 더 '진보적'이고 '변혁적'인가?

운동사회 성폭력을 공개하여 해결하면서 가해자가 진정한 반성을 하고 스스로의 성폭력적인 관점과 행위를 고쳐나가는 모습을 투명하게 보이는 것이 더 '진보적'이고 '변혁적'인가?!

진정한 진보와 변혁의 모습은, 왜곡된 '동지애'와 '조직보위의 논리'에 있지 않다.

<강위원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까지 노력들과, 그 노력들의 결실인 이 백서가 운동사회 성희롱, 성폭력들을 해결해나가는 참고서가 되기를 바라며, 운동사회 성폭력을 뿌리뽑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

[RE]백서 - 12.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 (초안) -난리?謔?뭇불이다. 눈물나네..  
보낸날짜 2003년 10월 15일 수요일, 저녁 6시 49분 33초 +0900 (KST)  
보낸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12. 강위원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

'강위원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강위원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해오는 과정에서 몇가지 지점이 심각하게 고민되었음을 밝힌다. 강위원 성희롱 사건을 바라보는데 있어서 몇몇 사람들이 드러낸 인식의 문제점들, 그리고 여전히 운동사회 내 성폭력에 대한 폐쇄적인 시각이 그것이다.

강위원 성희롱 사건을 두고 참으로 많은 말들이 있었다.

'정말 피해자와 가해자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가?'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은가?' '피해자가 강위원을 좋아하지 않았는가?'

혹은 '무슨 근거로 강위원을 매장하려고 하는가?' '요구안이 과도하다' '실명공개를 해서 뭐하겠다는건가?' 등등 이 사건의 뒤편에서 쓰는 수많은 말들이 오갔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비대위의 원칙, 진행경과, 각종 활동과 입장 등을 통해 많은 설명들을 했기에 다시 반복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한가지! 이 사건을 바라보는 키워드를 명확히 해야한다.

성희롱 사건을 바라보는 키워드는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피해자'이다.

동지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존중했던 사람으로부터 성희롱이라는 믿기 어려운 피해를 당한 이도 피해자이며, 가해자로부터 인간적 모욕과 무시를 받고 못 사람들로 부터 압목적 제재를 당하면서도 기어이 성희롱 사건을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올린 원동력도 피해자로부터 나왔다. 피해자는 성희롱의 피해자가 되기 위해 운동을 시작한 게 아니다. 또한 피해자는 성희롱의 피해자가 되기 위해 강위원 원과 인연을 맺은 것이 아니다.

아직도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은가'라거나 이 사건을 '치정사건'으로 바라본다면, 정말 다시 한번 묻고 싶다.

"그렇게 바라보기 전에, 한번이라도 피해자의 의지를 진지하게 새겨본 적이 있는가?"

"과연 피해자가 무엇을 원했다고 생각하는가?"

그 어떤 피해자도 처음에 자신이 '성희롱'을 당했다고 스스로 판단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피해자가 '강위원 성희롱 사건' 해결과정에서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자신이 '성희롱 피해자'라는 사실과 직면해야 했던 때다.

우리 사회는 성희롱 피해자에게 너무나도 많은 짐을 떠안기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비대위와 함께 원칙을 굳건히 하고 기나긴 해결의 노정을 걸어왔다.

성희롱 사건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이런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기를 진심으로 권한다.

그리고 이 백서를 읽은 모든 이들이 피해자의 용기와 결단에 지지와 박수를 보냈으면 한다.

운동사회 내 성폭력은 오랜 기간동안 무수히 존재해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되어왔다. 특히 지난 2000년 걸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가 무수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꾸준히 활동해오면서 운동사회 성폭력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굳게 다문 입속에 풍뎡 감춰둔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이 성희롱 사건을 접해보면서 비대위는 여전히 운동사회에 존재하는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폐쇄적인 사고들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었다.

모든 사회현상에 대해 그 근원을 파헤치고 연결하려는 '진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정작 성희롱 사건에 있어서는 단지 '두사람 간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인식하면서 그 본질을 예써 외면하는 인식도 있었다. 왜곡된 '동지애'로 가해자를 무턱대고 믿는 식의 자세(그러면서도 피해자에 대해서는 일단 불신하는 자세)도 있었다. 사건의 공개 자체에 대한 거부감 또한 상당히 존재했음을 밝힌다.

'동지애'와 '개인적 취부'를 혼동하지 말자.

'동지'란 무엇인가? '운동'이란 무엇인가? 라는 기본적 질문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자.

생각해보라.

운동사회 성폭력을 털어두기에 급급한 모습이 더 '진보적'이고 '변혁적'인가?

운동사회 성폭력을 공개하여 해결하면서 가해자가 진정한 반성을 하고 스스로의 성폭력적인 관점과 언행을 고쳐나가는 모습을 투명하게 보이는 것이 더 '진보적'이고 '변혁적'인가?

진정한 진보와 변혁의 모습은, 왜곡된 '동지애'와 '조직보위의 논리'에 있지 않다.

'진보와 변혁'이란 무엇인가? 무시받고 모멸받았던 자들이 자신의 상처에 대해 말할 때, 그리고 의당 받아야 할 존중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을 침묵하게 하려는 모든 시도는 '진보와 변혁'이라는 명어를 박탈당할 것이다.(백인위 책자에서 올렸는데, '변혁'이란 글자는 침부했죠. 히히. 좀 멧진 것 같은데..)

<강위원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까지 노력들과, 그 노력들의 결실인 이 백서가 운동사회 성희롱, 성폭력들을 해결해나가는 참고서가 되기를 바라며, 운동사회에 만연해 있는 성폭력을 뿌리뽑는데 믿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

○○아!

보낸날짜 2003년 10월 16일 목요일, 밤 12시 11분 13초 +0900 (KST)

보낸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uni-action@hanmail.net>

내 파일이 열리지 않는다.

김 컵에 깔려 있는건 97이거든..

아마 내가 쓰는게 버전이 높은건가봐.

97로 다시 보내주거나,

아님 그냥 끊어서 여기다 올려줘"

=====

우리 만나는거요... -난리

보낸날짜 2003년 10월 16일 목요일, 낮 3시 28분 59초 +0900 (KST)

보낸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답수 월요일에 보는 것으로 하면 좋겠어요.

각종 글들에 대한 수정은 그날 제가 정리해서 갈게요.

진언대립에 갑자기 더러 사침이 걸려서

좀 바쁘대용... ^^;;

그럼 모두 즐거운 날들 보내서용"

## 2. <강위원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기본 원칙

지난 9월 26일 <강위원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꾸러지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비대위는 강위원 성희롱 사건을 바라보고 해결해나감에 있어 일관된 원칙을 견지하고자 노력해왔다.

비대위가 활동의 기본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백서를 통해 비대위의 활동 원칙을 다시금 확인하고자 한다.

### 1) 피해자 중심주의를 확고히 한다.

#### ① 피해자의 경험과 언어를 통해 성희롱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다.

적어도 성희롱 사건에 있어서 우리 사회는 피해자에게 혹독하고 가해자에게 관대한 사회이다. 그 어떤 피해자도 자신이 성희롱을 당하기를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사건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직면하는 물음은 '내가 어쨌길래 그런 일을 당했나?'는 것이며, 가해자를 이해하려는 논리들이 행해진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들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의 성희롱 경험을 얘기하기까지는 굉장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아직도 피해자가 성희롱 경험을 얘기할 때, 피해자는 비난받을 각오까지 감수해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아직도 운동사회 내 성폭력에 대한 폐쇄적인 사고가 많이 남아있는 운동사회에서는 더더욱 큰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에서 비대위는 피해자가 성희롱 경험을 자신의 언어를 통해 표현하는 데 대해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성희롱의 고통에서 살아나온 피해자에게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자 하였다.

또한 비대위는 '객관성', '공정성'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가해자의 논리가 아니라, 피해자의 경험을 우선시한다.

흔히 성희롱 사건을 두고 '객관적으로(혹은 공정하게) 판단해야한다'는 얘기를 종종 들곤한다.

하지만 '객관적'이라 함은 누구의 기준에서 말하는 것인가? 성희롱은 '어디를 얼마나 심하게 만졌는가'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다. 신체의 어느 부분을 접촉했고 어떤 발언을 어떻게 했고 등의 물리적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피해자의 경험과 감정, 고통, 의지 등을 전혀 무시하는 것이다. 게다가 많은 성희롱 사건들이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 있을 때 발생한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객관성'이란 말은 가해자의 논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희롱은 피해자의 경험에 기초한 합리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을 기본으로 해서 판단되어야 한다.

비대위는 이런 이유로 피해자의 경험과 언어를 통해 성희롱 사건을 바라보고자 하였다.

#### ② 피해의 경험을 치유하고 극복하는 것을 사건 해결의 제1원칙으로 삼는다.

성희롱 해결의 처음과 끝은 피해자가 성희롱의 경험을 치유하고 극복하는 것이다. 가해자의 처벌이 성희롱 해결이 아님을 밝힌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성희롱의 경험으로부터 살아나온 이유 자체로 지지받고 지원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해의 경험을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비대위는 피해자를 전적으로 지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 ③ 피해자를 보호하되, 단지 보호의 대상으로 전락시키지 않으며 사건 해결의 주체로 바라본다.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한다. 성희롱의 경험을 얘기했다는 이유로 이름, 나이, 직업 등을 비롯한 모든 개인신상과 사생활이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피해자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있지 않은 조건에서 피해자의 개인신상과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은, 그 자체로 2차 3차의 가해가 될 수 있다.

비대위는 피해자가 자신의 언어로 얘기한 성희롱의 경험 외에는 그 어떤 개인신상과 사생활도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를 단지 보호의 대상으로 전락시키지 않고 사건 해결의 주체로 바라보려 하였다. 단지 보호의 대상으로 전락시켰을 때 사건 해결과정에서 피해자를 소외시킬 여지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피해자가 성폭력 사건 해결의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면서 극복해가는 과정 또한 중요했다.

그래서 비대위는 사건 해결과 관련한 모든 것을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진행하였으며, 피해자 스스로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이자 누구보다 적극적인 '지원자'로서 활동하였다.

### 2) 가해자가 진정한 의미의 반성을 하고 성희롱적인 관점과 언행을 고칠 수 있도록 설득하고 강제한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바라는 것은 가해자의 '처벌'이 아니라, 가해자의 '근본적인 반성'이며 '성희롱적인 관점과 언행을 바꾸어내는 것'이다. 가해자가 근본적인 반성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한 성희롱 가해 사실을 가감없이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하며, 피해자의 고통과 의지를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에 온힘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단지 이 사건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성희롱적인 관점과 언행을 모두 바꾸기 위한 뼈를 깎는 실천이 있어야 한다.

비대위는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가해자를 만났으며,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했다.

### 3) 운동사회 내 만연해있는 성폭력적인 문화와 풍토를 개선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향에서 사건을 해결해간다.

운동사회 내 성폭력 사건은 단지 하나의 사건으로만 볼 수 없다. 운동사회 내에 성폭력을 용인하는 인식과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수많은 사례에서도 드러나듯이, 운동사회 내에서 성폭력은 무수히 존재해왔으며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특히 운동사회 내 성폭력은 일정한 특징이 존재하며 그로 인해 심각성이 더욱 대두되곤 한다. 그로 인해 결국은 피해자나 지원자가 운동의 장에서 떠난 경우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운동사회 내 성폭력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비대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운동사회 내 성폭력을 제대로 된 해결원칙으로 풀려고 했으며, 운동사회 내 만연해있는 성폭력적인 문화와 풍토에 경종을 울리고 개선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했다.



5. 강위원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진행 경과 1 ~ 비대위 신고 전까지 (시간순 정리) : 별야 언니 - 피해자의 개인적 해결 노력, 피해자 지인들의 해결 노력, 대책모임의 구성과 활동

▶ 6월 26일 목요일

피해자는 친구 사씨로부터 '성희롱 피해자'임을 인지하게 됨.

▶ 7월 31일 목요일

사씨는 여러 번의 연락 끝에 강위원을 만났으나 가해자는 '잘못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라는 등 시종 일관성 없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임. 심지어 피해자에게 모든 사건의 원인을 떠넘기려고 함. 반성문을 제출 요구가 거절됨.

▶ 8월 5일 화요일

피해자는 강위원에게 직접 연락하여 반성문 쓸 것을 촉구, 가해자는 쓰겠다고 약속을 하였음. 그러나 '바쁘다'라는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한 것으로 미루어, 강위원은 당시에도 문제의 심각성과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것은 또한 본인만 가해자라는 사실을 인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되는데, 다시 말하면 자신의 행동이 '성희롱'이었다는 사실임을 모르는 행동으로도 볼 수 있음.

▶ 8월 7일 목요일

조선 피해자가 강위원에게 문자를 보내어 반성문 쓸 것을 다시 촉구.

▶ 8월 8일 금요일

밤 9시 39분,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기다려 달라는 문자를 받음.

▶ 8월 18일 월요일 - 피해자, 오전 10시경 강위원에게 문자를 보냄.

오전 10시 경 피해자는 강위원에게 문자를 다시 보내어 반성문 촉구.

▶ 8월 20일 수요일

피해자에게 메일이 왔으나 반성문이 아님.(자세한 내용은 사건일지 참고) -> 이 편지에 대한 비판이 보충되어야 하지 않을까?

▶ 8월 25일 월요일

피해자의 지인들을 중심으로 '강위원 성희롱 사건 대책모임' 결성됨.

▶ 8월 26일 화요일

대책모임은 강위원에게 요구사항을 보냄.(사건일지 참조)

▶ 8월 27일 수요일

가해자가 대책모임에서 보낸 메일을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화연락을 함. 강위원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킴.

▶ 8월 30일 토요일 - 8월 31일 일요일

피해자가 직언에게 사건의 전모를 이야기하고 강위원의 직언이기도 한 선배가 강위원을 직접 만나는 것에 동의함.

▶ 9월 15일 월요일

강위원을 만나기로 한 선배의 연락이 없어 피해자가 직접 전화함. 선배가 여러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강위원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음.

▶ 9월 23일 화요일 강위원에게서 온 메일 전문

강위원에게서 메일이 봄.(사건일지 참조)

▶ 9월 26일 금요일

선여대협과 피해자, 대책모임의 대표자가 만나 비상대책위를 구성.

▶ 9월 29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성폭력 사건 해결 계획 정해심. 강위원과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되지 않음.

▶ 10월 2일

비대위는 강위원 '1차 면담'을 함. 강위원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비대위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로 약속, 5일까지 공개반성문을 보내기로 함.

▶ 10월 6일

반성문이 오지 않아 연락을 취했으나 되지 않음.

▶ 10월 8일

새벽 3시 경 강위원이 유서로 보이는 메일을 비대위로 보냄. 강위원의 지인에게 연락을 취해본 결과 강위원의 음독자살 시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됨. 비대위와 피해자는 긴급회의를 갖고 사건해결지점의 원칙을 명확히 함과 아울러 진술적 부분을 수정함.

\* 2차 대책모임의 날짜를 모르겠다... 민정이가 알려줘~

\*\* 진여대협과의 접촉 이후에 관해서는 보고 받은 메일을 중심으로 정리했는데 나머지는 감사언니나 난리가 보충해 주세요~

11. 강위원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소하며 : 별야 언니

- 사건 해결을 여기서 정리하게된 이유를 중심으로

그간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들은 대책모임을 구성하고 이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하여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강위원은 너무나 기만적으로 회피해 왔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연락을 끊고, 다시 스스로 연락하는 등 일관성 없는 태도와 성의없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왔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피해자는 자신의 고민과 심적 어려움을 극복해 가며 계속해서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자세로, 가해자 강위원을 설득하려는 개인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것의 한 방법으로, 어느 선배가 개인적 중용을 하겠다고 나섰을 때도 기회를 주었던 것이다. 강위원은 그러나 그 모든 노력에도 연락을 끊고 계속해서 극히 개인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였다.

피해자와 대책모임 구성원들은 좀더 전문적인 단체와 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에 진여대협의 한 간부와 연락을 취하였다. 이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고 비대위라는 공식적인 이름으로 강위원에게 접촉하고자 하였다. 강위원은 한차례 반성문을 보내어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등의 자세를 보이다가 다시 연락을 끊는 이기적이며 극단적인 태도를 재현하였다.

그러나 강위원의 태도와는 별개로 비대위는 확고한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며 이 사건을 전면 공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강위원에게 연락이 왔고 비대위는 한차례 가해사와 면담을 하였다.

1차 면담 당시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줬다면, 비대위가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약속까지 하였다. 당시 비대위는 강위원의 태도에서 거짓을 느낄 수가 없었고 그리하여 1차적으로 공개사과문을 써서 보낼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강위원은 다시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잠적하였다.

원칙적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는 비대위는 이 사항에 큰 필요없이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는 와중에, 강위원이 '생명'을 담보로 한 자학행위를 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비대위는 가해자의 현재의 모든 상황, 즉 정신적, 육체적인 상태를 감안하여 전면 공개하는 것에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비대위는 가해자 강위원 일개인은 정치적으로 말살하거나 생명을 위협하기 위해 수없이 고민하여 그와 만난 것이 아니다. 강위원이 그야말로 제대로 된 순둥기로 거듭나는 것을 바라고 도와주기 위해서였고 또 이 길을 계기로 하여, 다시금 순둥권 내외 상차별, 성폭력에 대한 보수성, 폐쇄성을 되돌아보는 성찰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이를테면 강위원 같은 성폭력 가해자가 이와 관련한 강연을 하는 모습이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닌가. 이것은 피해자의 의도와도 절대적으로 부합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고덕한 사항은 피해자이다.

강위원은 일말의 반성도 없이 자학행위를 했고, 이 행위는 피해자에게 있어서 가장 잔혹한, '제3의 가해행위'기 때문이다.

가해자는 본인이 1차면담 과정에서 밝힌대로 모욕을 당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강위원은 이 사건을 단순히 '모욕적인 일'로만 받아들였다. 이것은 강위원이 지인들을 만나 이 사건에 관하여 토로한 것을 근거로 하여 알 수 있었고 더불어 자학행위를 하기 전, 비대위에 보낸 메일에서도 드러난다. 죽음을 각오한 상황에서 쓴 그 메일에서조차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목은 발견할 수 없었다.

피해자는 7년 동안 동지애적 믿음과 의리를 가지고 강위원과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그 7년의 세월은 한순간에 부정하고 싶은 과거가 되고 말았다. 더 나아가 이번 강위원의 자학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7년 간의 세월을 부정하게 끄는 것 이상의 큰 고통과 고역이다.

그러나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피해자를 포함한 비대위는 이 문제를 강위원과 피해자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만으로 인식하지 않고 순둥권 내부의 총체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하기에 피해자와 비대위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이제까지 피해자, 대책모임, 비대위의 노력과 그 과정을 담은 백서를 만든다.

이 백서를 통하여, 강위원이라는 가해자 본인에 의해 혼란을 겪고 있을 이들과 사건의 진위를 알고 싶은 이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더 나아가 한층더 과타 운동단체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현재의 모습을 진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피해자는 학생운동을 뒤늦게 시작했다. 1997년 당시 피해자는 모 대학에서 인문대에서 부학생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5기 한총련 출범식' 이후, '이석, 이종권 처사사건' '한총련 마녀사냥' '류재율, 김준배 열사의 죽음' 등 일련의 사태를 접하며 충격을 받았다. 깊은 죄책감과 부채의식에 빠져있던 피해자는 당시 한총련 의장 강위원에게 1997년 8월경에 처음 편지를 썼다. 강위원 수감 전에는 개인적 친분이 전혀 없었지만 편지를 주고받으며 책을 보냈고 면회 가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강위원과 본격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는 한가지 다짐을 했다. <<작은 편이지만 한총련의 부거분 심을 함께 한다. '농지적 마음'과 '농지적 의리'로 줄까지 꾸준히 연락한다.>> 강위원은 2001년 7월 말에 출감하였다.

<강위원 성희롱 사건일지> - 2003년 1월 9일 ~ 9월 15일 까지

▶ 2003년 1월 9일 목요일

당시 수배 중이던 가씨(피해자의 친구)가 밤 10시 30분 경 피해자에게 술 한잔하자고 전화했다. 당시 강위원, 나씨, 다씨(당시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던 농총 단체 간사이자 피해자의 친구)도 자리에 함께 하였다. 여러 이야기가 오가다 2002년 개혁신당에서 문제를 일으킨 이른바 '최용철 성희롱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며, 각 조직 내부도 '성희롱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 라고 피해자 말하였다. 이에 강위원이 술잔을 벌이며 "뉘 저런 년이 다 있어.", "농지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 4월 1일(화요일) - 4월 2일(수요일)

자정이 넘는 시각 강씨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 자신이 술을 많이 마셨는데 나올 수 없다는 것이었다. 피해자는 나갈 수 없다고 말하였다. 당시 강위원과 피해자는 다소 불편했기 때문에, 피해자는 다음날(4월 2일)에 강씨가 민망할 수 있겠다고 느껴 가벼운 안부 인사를 문자로 보냈다. 강위원이 바로 전화하여 여러 이야기를 하다 "난 술 마시면 여자 생각하는데, 넌 남자 생각 안나?"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남자 생각? 옛사람 생각나지요. 그냥 욕하고 잔다"고 말하였다.

▶ 4월 14일 월요일

이날 11기 한총련 의상에 정재복씨가 당선되었다. 강씨에게 새벽 2시 30분 경 전화가 왔다. 선거 마치고 경희대를 내려오는데, 감옥에서의 삶, 출소 이후 2년의 삶이 떠오르다면서 피해자가 생각나다고 하였다. 40부 정도 통화를 하는 와중에 피해자는 지난 1월의 일을 상기시키며 "어떻게 나한테 그런 복을 할 수 있냐"고 말하였다. 그러자 강씨는 전화를 계속 이어가면서 술 한잔 하자며 "xx(피해자)야 잘하게"라고 말하였다.

어이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농지가 기쁜 일(정재복 당선)로 선화를 했으므로 술자리에 나섰다. 당시 나씨, 그의 애인 라씨와 술자리를 함께 하였다. 이후 피해자 집 근처에서 피해자, 나씨, 강씨는 함께 다시 술을 마셨는데 해가 뜨자 술에 취한 동지들이 그날 집에 살 수 없어 피해자의 집에 함께 왔다.

나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갑자기 강씨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나씨가 화장실에서 돌아오자 강씨는 다시 나씨에게 침대 밑에서 자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함께 침대에 누워 안아달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사춘 동생이 자고 있는 방으로 갔다.(자세한 보충 필요) 아침 9시경 강씨는 일어나서, 피해자에게 인터넷을 검색해야 한다며 컴퓨터를 켜줄 것을 요구하고 인터넷 검색을 하며 옆에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았다.

▶ 4월 24일 목요일

피해자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가 와 있어 번호를 확인하니, 새벽 4시 30분 경, 강씨가 한 전화였다. 그래서 피해자는 오전 11시 30분 경에 강씨에게 전화하여 "부순 일이 있었나?"고 물었다. 그러자 강씨는 머쓱하게 "네네 실 실라고 했나보지"라고 말하였다.

▶ 5월 15일 목요일 (피해자 선배 자씨 증언)

차씨는 강씨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차씨는, 강씨가 피해자에게 새벽 3~4시에 전화를 하다가, 술 마시고 '생각이 나다'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은 지한 선후배 관계이더라도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당시 자씨는 4월 14일 사건을 모르고 있는 상태였으며, 다만 후배인 피해자가 걱정되어 강씨의 관계에 분명한 선을 긋도록 중용하였고, 기회가 된다

1) 모중 - 8월 20일 이후 다씨의 송언  
그날 밤(1월 9일) 다같이 운동 단체 사무실로 왔고, 나(다씨)와 피해자가 함께 잠을 잤는데, 피해자가 할수도 자지 못하는 걸보고, 다음날(1월 10일) 나씨와 피해자가 나간 후, 강씨에게 나는 "피해자와 부순 관계냐"고 물어보았다. 강씨는 "내가 감복에 있을 때 책도 모내주고 편지도 주고받은 사이야. xxx(피해자)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여성동지들이 편지를 모내주고 했다. 나 술다고 하는 여성동지들도 많은데 누구 혼삿길 말칠 일 있냐"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최용철 사건을 이야기하 것 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로 농지를 복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난 농지들이 방수에 아파트도 마련해주고.'라고 말하였다. 또한, 당시 입고 있던 자신의 옷과 목도리를 가리키면서 '동지들이 열심히 운동하라고 마련해준 것'이라며 '내가 직접 산 것은 없다. 이렇게 좋은 동지들이네 동지들을 욕하면 안된다고 말하였다.

면 이 부분에 대해 강씨에게 학답을 받고자 하였던 것이다.

[5월 15일 상황]

피해자의 또 다른 선배 카씨와 강씨가 약속을 했던 5월 15일(연대 대통령 기간)에 우연히 피해자와 차씨도 동석하게 되었다. 강씨는 한양대에서의 특강으로 11시 경에서야 약속 장소인 연세대 앞으로 왔다. 차씨는, 이미 다소 술을 마신 피해자를 먼저 보낸 후 다른 약속 때문에 일어난 강씨를 따라 나가 대rob에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였다.

차씨 : xx(피해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위원 : 이미 6개월 전에 충분히 말했습니다.

차씨 : 그렇다면 새벽에 전화를 한다거나 하는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요?

강위원 : 그런 부분이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면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의 대화를 이어 나갔고, 차씨는 강씨에게 피해자한테 더 이상 상처주지 않기를 부탁하였다. 대화 도중 강씨는, 본인을 좋아했던 여자가 자신도 모르게 두 사람이 결혼할 사이인 것처럼 가족들과 주변에 알렸던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그 여자의 가족까지 만났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덧붙여 본인은 마음에도 없었는데 김치국부터 마셨다는 등의 이야기 들 함으로 당시의 피해자와의 관계도 그렇다는 것을 유추하게 하였다.

▶ 5월 31일(토요일) ~ 6월 1일(일요일) - 2차 가해 행위

5월 31일 연세대에서 '정치수배 해제모임 후원 주점'이 있었다. 후원 주점에 온 강씨는 피해자에게 "왜 나를 피하냐"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농성을 떨고 추근거렸다.

6월 1일 아침에 강씨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말하였다. 이때 평소 피해자와 가까이 지내던 피해자 소속 운동 단체 동지 아씨와 당시 수배자 동지 자씨도 함께 있었다. 담배를 주고 돌아가는 피해자에게 강씨는 "너, 이리 줌 봐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미치겠다."라고 대응하며 다시 돌아서는데 피해자 뒤통수에 대고 "저년이"라고 욕을 하였다. 이때 피해자는 동지를 앞에서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

▶ 6월 3일 화요일

피해자가 강씨에게 전화하여 "또 나한테 욕한거 아느냐"라고 물었더니, 강씨는 "다음에 이야기하자"며 전화를 끊었다.

▶ 6월 5일 목요일 (피해자 친구 마씨와 다씨 증언을 종합한 것) - 2차 가해 행위

이날은 5월 죽던 때 없었던 '정치수배 해제모임 후원 주점' 뒤집이를 연세대에서 하는 날이었다. 수배자들과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는 운동 단체 사람들이 모여 술자리를 가졌는데, 밤 11시 경 사람들은 서서히 집으로 갔고 젊은 회원들은 수배자들과 늦은 시간까지 연세대에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 친구 마씨와 다씨는 운동 단체 회원의 한 언니가 늦은 밤에 집에 간다고 해서 연세대 교문 앞까지 배웅을 하고 다시 술자리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어느새 강씨도 와 있었다. 그 자리에는 피해자의 친구를 마씨와 다씨를 비롯해, 바씨가 있었고, 당시 수배 중이던 수배자 동지들도 함께 있었다.

그 때의 시간이 새벽 한 시쯤이었는데 강씨는 이미 만취한 상태였다. 사람들이 몇몇이 더 가고, 정리를 하려고 할 즈음이었다. 그 자리에는 피해자의 친구들, 즉 나(글쓴이)를 비롯해 김미성, 고광희가 있었고, 수배자를 유영업, 이산라 등도 함께 있었다. -> 명칭 변경  
강씨는 술자리에 앉자마자 "누구는 애인하나도 없이 낮에 화장실에서 마스터베이션이나 훑나하고...."라는 말을 꺼내 당황스러웠다. 그 자리엔 나이 어린 한총련 학생 여후배들과 함께 후원회 여회원이 세 명이나 있었던 자리이다. 강씨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마스터베이션이라는 이야기를 아무 꺼리낌없이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될뿐더러 여성에 대해 배려하는 부분이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했다.

마스터베이션 이야기를 시작해서 후배들에게 주저리 주저리 이야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강씨가 피해자의 이름을 꺼냈다.  
"xxx(피해자)는 안 왔어?"  
"네. 못 왔는데요."  
그 다음부터 강씨는 피해자의 이름을 계속 거론하며 이야기를 이어 나갔다.  
"xx(피해자) 때문에 힘들다."  
"xx(피해자) 그런 때문에 괴롭다."  
피해자의 친구이기 이전에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불쾌해진 우리는 강씨를 말했다.  
"애 있지도 않은 시간만은 하고 그래요?"  
"왜 우리 친구를 욕해요?"  
그럼에도 강씨는 계속해서 피해자에 대해 말을 했다.  
"xxx(피해자)는 마녀야."  
"xx(피해자)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야."

강씨가 많이 취하기도 해서, 이야기는 이쯤에서 끝이 났는데, 피해자를 모르는 사람이 들었다면 이런 말들은 영백히 피해자가 강씨를 아주 못살게 하여 괴롭히는 '마녀'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마녀를 비롯해 다씨, 바씨는 그 동안 피해자에 대한 강씨의 행태를 직접 보아왔고, 피해자에게 들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강씨의 말에 전혀 공감할 수 없었다.

문제는 강씨도 다.마.바씨가 피해자와 가깝게 지낸다는 것을 모르지 않다는 것이다. 피해자와 절친한 친구를 앞에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수배자를 앞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가 분명하고, 강씨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수배자들) 앞에서 좀더 위신을 세우려는 의도로 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다.

또한, 새벽 3시 30분쯤 모두를 연세대 수배해제 사무실로 올라와 쉬려고 할 때, 바씨와 강씨는 집이 같은 방향이어서 함께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느닷없이 강씨는 사무실 모퉁이에 걸터앉아 마씨에게 손을 잡아달라고 요구했다.

“xx야, 손 한번만 잡아줘.”

“빨리 가세요.”

“손 한번 잡아주면 갈게.”

이 말을 몇 번 더 반복했고, 이에 답답해진 바씨가 ‘그냥 한번 잡아줘.’라고 말했고 마씨도 빨리 돌려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악수를 했다.

그러자 무슨 목적이라도 달성한 것 마냥 강씨는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자신이 내댜진 말이 우연했는지 겉연착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런 식으로 자신의 행동을 우마시킴으로써 강씨는 여성을 자신의 말 한마디로 좌지우지하려는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 ▶ 6월 26일 목요일

피해자는 97년 당시 인부대 학생회장이자 한솔련 대의원이었던 친구 사씨를 오래만에 만났다. 그동안 강씨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하자, 갈등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피해자에게 사씨는 “너, 성희롱 당한거야.” 라고 말하였다. 이때 피해자는 자신이 성희롱 피해자임을 처음으로 인지하게 되었고 이후 사씨는 강씨와 만나볼 계획 하에 이날 사전 작업의 성격을 띠는 형식으로 강씨에게 전화를 하여 서로 안부를 묻고 끊었다. (절가)

27일 새벽 1시 30분 경, 강씨는 피해자에게 오랜만에(절가) 전화를 하였고 능청을 떠는 강씨에게 피해자는 서서히 강도를 높이면서 이야기하였다.

“워썬어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니?,” 워썬어!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니?”

강씨는 순간 당황하며-> 보충설명 필요할 듯(무슨 얘기를 하다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말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내가 너하고 결혼해야되니?,” “갑작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래 까놓고 이야기하자. 내가 너에게 책을 보내라고 했나? 면회를 오라고 했나?”라고 말하였다.

책 보내고 면회간 것을 피해자가 오로지 강위원이란 사람을 '남자'로 인식하여 '남자'를 만나기 위한 행동으로 처벌된 상황이 되어버려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에 피해자는 황당했다. 통지애가 이렇게까지 왜곡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에 피해자는 “아! 그만하자”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 ▶ 7월 31일 목요일 (피해자 친구 사씨가 가해자 강위원을 만나고 정리한 글)

나는 강씨와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지만 97년 그가 5기 한총련 의장이었다는 것과 당시 나는 대의원이었다는 것에 동지적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강씨를 만났을 당시에는 이번 성희롱 사건의 해결 지점도 그러한 동지애적 믿음을 기초로 하였다. 그러나 강씨와 만난 일을 이제 되돌아보면, 스스로 어리석었다는 생각도 든다. 동지애적인 감정에 휩싸여 좀더 객관화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6월 26일 친구(피해자)에게 사건 얘기를 들고 강씨와 첫 통화를 한 후 몇 번 문자를 보내고 전화도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이런 일로 만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강씨가 회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볍게 안부를 물으며 한번 만나자는 식의 문자를 보냈었다. 연락이 없자(그 전에는 간단한 안부 문자에도 바로 전화가 왔었다.) 이후 어떻게든 만나야겠다는 생각에 할 말이 있으니 만나자라는 문자를 보냈고 그날 바로 전화가 왔다. 그리하여 지난 7월 31일 오후 7시 신촌에서 강위원씨를 만나게 되었다.

나는 강씨가 수감중일 때, 피해자인 친구와 함께 두 번 면회를 갔었다. 98년 5월에 당시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와 99년 8월 경주교도소 이감된 후로 또 한번 면회를 갔었다. 그때의 인연으로 2001년 출감 이후 연세대에서 인사를 나눈 적이 있어 서로 안전한 분위기에서 서로 가담하 의사와 사는 얘기를 하면서 수년이 적은 어느 바에 들어갔다.

자신의 활동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가로막고 내가 왜 만나자고 했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강씨는 당황한 듯 '모르겠지만 형의 문자를 받고 무슨 할 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보충) 난 말을 이어 나갔다.

“선배는 xx(나씨)와 함께 4월 14일 아침 7시 경 내 친구의 자취집에 갑니다. (나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선배는 내 친구를 끌어안고 있을 맞추었습니다. 다시 xx(나씨)에게 침대 밑에서 자라고 하고 내 친구에게 함께 침대에 누워 안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다. 그 후 선배의 분명한 태도를 요구하는 내 친구의 선배(차씨)에게 당신은 말했습니다. '6개월 전에 충분히 말했는데...'라고요. 친구를 끌어안고 입을 맞춘 사람이, 오히려 그 친구가 자신을 쫓아다녀 곤란하다는 식으로 말하며 내 친구를 스토크로 몰았습니까. 이 일에 대해 기억하세요? 당신은 친구가 당신을 좋아하는 마음을 이용하여 내 친구를 성희롱 했습니다. 선배의 여성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셨나요?"

(나는 한 가지 더 이야기했다. “어느 술자리에서 최용철 얘기를 하는 내 친구에게 술잔을 얹으며 ‘뭘, 저런 년이 다 있어’하고 나가버리고, 후원 주점에서 달배를 주고 돌아가는 내 친구의 뒤등수에 대해 ‘저년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년, 저년 하는 말은 즐거운 분위기에서 맑은 정신으로 할 때는 애정 표현 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배는 술을 마시고 있었고 그때의 분위기를 봤을 때 분명 욕을 한 것입니다. 통지애에게 그런 욕을 하다니요. 그런 강선배의 버릇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말을 하는 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강씨는 몹시 당황해 했다. 기억하느냐는 나의 질문에 모두 기억한다고 대답했지만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 문자를 보고 그 일을 떠올렸다고 대답한 것으로 비추어 강씨도 분명히 그것을 의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처음에 강씨는 '나에게 그렇게 잘한 통지애에게 그러면 안되는 건데, 내가 정말 그 친구에게 큰 상처를 했습니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곧 공지에 올린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드러났다. 예전부터 피해자에게 알아들게 이야기했는데 자신의 주변을 맴돌다며 전에 자신을 좋아하는 후배들을 어떤 방법으로 뿌리쳤는지 늘어놓기 시작했다.(한 여성은 같은 학교 후배인데, 구속 수감시 옥바라지를 하겠다며 면회를 자주 왔었다. 강씨는 그 후배의 마음을 알았기에 모질게 면회 말고 얘기했고 그 후배는 울면서 돌아갔다. 이후 후배는 다시는 면회를 오지 않았고 이 이야기를 아는 선배에게 하자 선배는 그것은 '또 다른 폭력'이라며 강씨를 아끼는 사람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했다. - 이즈음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던 것도 이야기했다. - 또, 한 여성도 계속해서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때로는 모질게 하기도 했지만 때때로 '또 다른 폭력'이라는 말이 생각나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결국 그 여성도 자신을 포기했다. 지금 그 여성은 여성학 관련 대학원에 다니고 있고 지금까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등)

강씨는 자신이 걸어진 삶에서 그러한 일(성희롱)은 없었다는 근거라고 문인이 믿고 있는 위의 일들에 대해 말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양 이야기했다.

초점이 흐려지자 나는 다시 물었다.

“다른 후배를 때어냈던 것처럼 내 친구에게는 하지 못했죠?”

“네.”

“그리고 선배가 말한 것처럼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생각나서 선배가 스스로 연락했죠?”

“네.”

“내 친구가 강선배를 좋아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 친구에게 그런 행위를 했죠?”

“네.”

“강선배는 내 친구의 감정을 이용해서 성희롱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러셨나요?”

이렇게 묻자 강씨는 대답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씨는 혼자 차분히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고 난 반성문 쓸 것을 제안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했던 것처럼, 과거의 행위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니, 먼 과거까지 되짚어보며 쓰라고 했다. 그리고 반성문을 나에게 쓸 것을 요구하자 강씨는 왜 줘야 하나고 반문했다. 나는 강씨의 고민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또 강씨의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 중 교정할 것이 있으면 교정에 주겠다고 대답했다.

나의 제안에 강씨는 이렇다할 대답없이 계속해서 사건의 전후에 관한 설명만 반복적으로 늘어놓았다.(피해자가 자신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연락했고, 자신에게 다가왔다 등) 어떠한 경우이라도 강씨의 행동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장원, 이한별 사건에 대해 언급하자, 자신도 같속에 있을 때 그 소식을 접했는데 '그런 놈들은 운동권 잡스레끼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내가 달신도 다르지 않다고 하자 몹시 괴로워했다. 운동권의 잡스레끼에 포함된 것을 못 견디는 듯 보였고, 자신을 그렇게 모지 말라고 화를 냈다. 그래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난 술 마시면 여자 생각하는데 난 날자 생각 안나?' 라고 말했던 일에 대해 기억하냐'고 묻자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에 대해서는 말문을 열지 못했다.

그러나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며 화가 난 듯한 태도로 일관했고 나오는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으므로 다른 사람과 술을 더 마시러 가야겠다고 말했다. 나는 바석무의 필요성에 대해 재차 설명하고 계속해서 요구했다.

강씨는 자신 스스로의 모습이 무척 부끄럽다며 말했다.

“앞으로 운동권이라는 이름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접고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더 얘기하려는 나에게 이해해 달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반성하며 산다는 증거를 보고 싶다고 하자 믿어달라고 했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라며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했다.

술집에서 나와서 난 강씨에게 반성문을 쓸 것에 대해서, 당신의 생각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리고 다른 술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더 이야기를 하면 강씨가 나와 피해자의 웃을 이해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던 것이

다. '젊은이의 양지'라는 술집에서 강씨는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난 그럴 때마다 사건을 상기시켰고, 강씨는 나에게 투정 부리는 말투로 지금은 그런 얘기하지 말자고 했다.

과거 피해자를 만났던 일들에 대해 얘기하다가 나와의 만남에 대해서도 말하기 시작했다. 강씨는 나를 처음 본 후부터 자신과 코드가 맞은 사람이라고 느꼈다는 것이다.

나는 '이런 식의 말투로 사람들을 만났을테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강씨에게 특별한 존재라고 느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선배에게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대답했다. 강씨는 투정부리는 말투로 '아니다, 형(본인)을 처음 본 날을 기억한다'며 그때 썼던 안경이 어떤 색이었는데 말했다. 특별한 사람 아니면 어떻게 그런 것까지 기억하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러곤

"왜 나에게 한번도 편지를 쓰지 않았어요?"라고 물었다.

난 당시에 다른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다고 말하자 강씨는 다시 "질투 나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른 얘기 끝에, 나와 평생 친구하자라는 말도 했다.

강씨의 이런 식의 화법이 불쾌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되기도 했지만 '평생친구하자'라는 말이나 몇 년 전 연회시 잠깐의 만남을 비교적 세세히 기억하는 강씨에게 기대감이 생겼고 이런 식으로 편안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계속하면 의도한 결과를 고집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그냥 듣고 넘겼다.

그러나 반성문 쓰는 부분에서 자주 막히자 나는 대답해줬고 그것의 해소 방안으로 난 노래방에 갈 것을 제안했다.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면만 있는 나에게 쉽지 않은 이야기와 요구를 들어야 하는 강씨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싶었다.(보충)

노래방에서 강씨는 서서 노래하는 나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는 깍지를 자연스럽게 껴다. 2)피해자인 친구에게도 자주 깍지를 껴다는 얘기가 떠올라 난 손을 뺐고 강씨도 손을 놓았다. 그러면서 강씨는 농담처럼 '이것도 성희롱이라고 하겠네.'라고 말하기도 했다.(->이 부분과 관련하여 강씨와 비대위와의 1차 면담 시의 강씨가 주장한 바와 내용이 틀려 아래에 보충함)

노래방에서 나와 연세대 앞 골다리 근처에서 다시 얘기를 시작했다. 강씨는 다시 착잡한 표정을 지었는데 나는 강씨가 억울해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강씨가 나에게 다시 물었다.

"그 친구는 정말 내가 성희롱했다고 생각하나요?"

"네."

그러자 강씨는 어기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내가 왜 xx(피해자) 때문에..."

그리고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에 지지 않는 섬섬함을 느꼈는지 자주 물어보면서 아래와 같은 말도 했다.

3)xx(피해자)는 그때 더 원했지만 내가 그냥 자라고 내보냈다."(이후 친구에게 확인해 보니 사실과 달랐다.)(->이 부분과 관련하여 강씨와 비대위와의 1차 면담 시 강씨가 주장한 바와 틀려 아래에 보충함)

나는 스스로를 객관화하는 문제에 대해 얘기하면서 강씨의 잘못을 다시 짚어내자,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했다.

2) 비대위와의 1차 면담시 강위원은 사씨를 만나서도 파렴치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1차 면담 보고서 참고) 매우 놀란 듯 사씨가 먼저 팔짱을 끼고 괜찮다라는 말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는 노래방에서 강씨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강씨는 내가 노래를 하고 있을 때 혼자 나가 맥주를 몇 캔을 사와 마시고 있었고 노래방의 특성상 대화가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내가 노래를 할 때 강씨가 손을 잡아 당황스러웠는데 손을 빼는 것도 어색할 것 같아 잠시 잡고 있는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나서 깍지를 끼는 바람에 나는 손을 뺐다. 그러자 강씨가 나에게 어깨동무를 했고 당시에 나도 그것을 동지적 유대감으로 받아들여 함께 어깨동무를 했다. 강씨는 본인이 노래를 할 때 앉아 있는 나를 자꾸 일으켜 세워 같이 부를 것을 요구했고, 내가 부를 때 본인도 함께 부르기도 하여 당시에는 어색한 상황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상황에 대하여 분명히 바로 잡고 싶은 것은, 강씨의 말은 사실무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에는 강씨의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지만 강씨가 이후 연대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의 책임을 돌리려는 태도를 보이자 강씨의 생활태도와 사고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강씨와 만난 날을 정리하면서 모욕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 문제의식을 비대위와 함께 하였다. 강위원이 이후 당당한 듯한 태도를 보이고 지인들에게 자신의 진심이 왜곡되었다고 토로한 부문의 일종의 차이는 여기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3) 강씨와의 1차 면담 과정 중 비대위가 강위원씨는 피해자의 친구에게 'xx(피해자)가 더한 것도 요구했는데 내가 다른 방으로 보냈다'는 사실에 대해 확인하자 강하게 부정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이 더 할 수도 있었는데, \*\* (피해자)가 무슨 말인가 하면서 나를 말렸고 그래서 거기서 멈췄다고 말하였다. 이 말 또한 사실무근이다. 이 이야기는 연대 골다리 신호등 앞에서 피해자 본인도 성희롱 당했다고 느끼는 질투과 이어져 나온 말이다. 강위원은 자신은 그런 사람(성희롱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며 그 근거로써 이 이야기를 했다. 강위원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그 날 어땠는지 아세요? xx(피해자)가 더 요구해서 내가 더한 것도 할 수 있었지만 저, 그러지 않았어요. 저 그렇게 살아온 사람 아니에요."라고 말했다. 내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당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성절촉이 있던 날의 상황에 대해서 키스하고 옆에 누우라고 말했다는 것, 그리고 피해자는 그 말을 나와 사촌 중생의 앞에서 들었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그 밖에서 어떻게 봤는지 상세한 얘기를 듣지 못해서 믿음이 약했기 때문이다. 나는 당시 가해자가 말한 '피해자와 더한 요구'가 무엇인지,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했으므로 강위원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강위원 스스로의 기억을 토대로 한 답변 중의 또하나의 오류는, 피해자가 진술해 놓은 대목을 읽으면 알 수 있을 것이다.(방을 나오게 된 과정에 대해 보다 상세히 기술했으면 좋겠음)

계속해서 반성문이란 무엇이든 함께 고민하자고 얘기했고 강씨는 모든 것을 접겠다고, 그런 자신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나는, 강씨가 광주로 내려가면 앞으로 어떻게 만나겠냐고, 학답을 하라고 했지만 강씨는 연락하겠노라는 막연한 말만했다. 이야기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나는 화가 났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다.

모든 것을 동지애적 감정만으로 풀려고 했던 자세를 반성하는 나에게 다음날 오후 강씨는 출근 잘했냐는 안부 문자를 보냈다. 고백컨대 이 문자를 받고 강씨에게 다시 희망과 기대가 생겼다.

같은 날(8월 1일), 한 선배와 신촌에서 술을 마시며 나는 강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어떻게든 강씨를 잡아보고 싶은 실정에서였다. '실망시키지 말아달라', 그러자 '이미 실망시켰고 참 좋은 사람으로 참회하며 살겠다.'라는 답변자가 왔다.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 나는 다시, '같이 하자, 어떤 방식이든 함께 하자'고 문자를 보냈고 강씨는 '형에게 많은 것을 배웠고, 한편으로는 사람 관계가 무서워지기도 합니다.'라고 보내왔다.

이 부분에서 강씨에게 가지고 있던 마지막 인간적인 믿음이 무너졌다. 사람과의 관계를 무섭게 물고 간 주체가 바로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며 회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상황을 타인의 잘못으로 떠넘기려는 강씨는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했다.

이번의 만남을 통해서, 개인적 믿음과 동지애를 가지고 풀어보려고 했던 나의 노력은 헛된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동권 내의 권력의 문제, 사회에서 만연된 성폭력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 ▶ 8월 5일 화요일

- 피해자가 친구 사씨에게 강위원과 만난 이야기를 듣고 강씨와 통화. 그 결과 강위원은 반성문 함께 쓰겠다며, 피해자 메일로 반성문을 보내기로 함.

[통화 내용]

피해자 : 왜 반성분늘(사씨에게) 안 쓴다고 했느냐?

(강위원 거의 말을 하지 않음)

강위원 : 내가 너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니.

피해자 : 반성문 써라. 반성문 전진을 위한 디딤돌이다. 당신이 감옥 안에서 나에게 쓴 편지 내용이다.

(피해자는 수차례 이 말을 상기시키며 강위원을 설득함.)

강위원 : 너에겐 쓰겠다. 100장이고 200장이고 쓸 수 있다. 정말 정직하게 반성하고 싶다.

피해자 : 그럼 내 메일 주소 적어라. 그리고 내일부터 쓰자.

강위원 : 나 바쁜 거 알아.

피해자 : 지금 무슨 소리냐? 난 내 문제가 중요하다. 당장 내일부터 써라.

강위원 : 그래 너 문제가 중요하겠지.

피해자 : 내가 남자한테 환장한 사람인 줄 알았지?

강위원 :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넌 다른 사람들과도 달랐어.

그리고, 피해자는 사씨로부터 들은 황당한 이야기를 강위원에게 물어봄.

피해자 : xx(사씨)에게 그 날 내가 더 요구했는데, 당신이 나가라고 했으며?

강위원 : 어떻게 너 문신으로 나온 친구한테 그런 말을 하나? 그 친구 말 믿지 마라.

피해자 : 도대체 당신 말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입니까?

이날 통화에서 강위원은 계속적으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본정수위에 호소하였다.

### ▶ 8월 7일 목요일 - 오전에 피해자가 강위원에게 문자를 보냄.

'메일을 확인해 보니, 반성문이 없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 ▶ 8월 8일 금요일 - 피해자 핸드폰으로 밤 9시 39분 강위원에게 문자가 봄.

'아직 첫 문장조차 못쓰고 있네. 어렵고 쓰린 일이구만. 좀더 기다려주세요. 곧 연락할게.'

### ▶ 8월 18일 월요일 - 피해자, 오전 10시경 강위원에게 문자를 보냄.

'반성문을 쓸 의향이 있으십니까? 내일 19일까지 연락하세요. 연락 없으면 반성문을 거부하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후 다음 단계를 강구합니다.'

### ▶ 8월 20일 수요일 - 피해자 메일로 오후에 강위원에게 메일이 음.

[메일 내용] -> 별첨의 형식으로 정리해야 할 듯

성정한 가르침을 주기 위한 고역이라면

넉넉한 여유로 기다려 수시리라 압니다.

지난번 통화에서 느낀 가장 큰 쓰라림은

회복불능 상태로 접어든 신뢰의 파산이었지요. 그리고

마치 피고인을 다루는 듯한 경고성 문자는 경고가 되기보다 절망감을 느끼게 했답니다.

자신도 모르게 엄청난 범죄자로 스스로를 공갈하고 격하하는 나를 보면서

또다시 무모한 결벽주의의 극단을 절감합니다.

비단 이번 일뿐만 아니라 눈명 전체를 놓고 나름대로

철저하고 심각하게 그리고 비통한 심정으로 자기해부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직한 성찰이 되기 위해서라도 나에게 절복의 수업이 필요하답니다.

책장에 꽂힌 수많은 책 중에 보낸이 이름란에 당신 이름이 적힌 책들을 볼 때마다

당신과 약속한 고통스런 이 작업의 소용함을 되새겨보게 됩니다.

당신이 이제부터는 저로 인해 힘든 일이 없길 그저 당신 가는 길에서 행복하길 바랄뿐입니다.

준행행 기일 이전에는 당당한 모습을 되찾고 싶습니다.

곧 연락 드리겠습니다.

2003. 8. 20 강위원

### ▶ 8월 25일 월요일 - '강위원 성희롱 사건 대책모임' 결성

### ▶ 8월 26일 화요일

- 오후 2시경 '강위원 성희롱 사건 대책모임'에서 대표 메일을 통해 강위원에게 요구 사항을 보냄.

[메일 내용]-> 별첨의 형식으로 정리해야 할 듯

<강위원 성희롱 사건 대책모임>은

가해자 강위원에게 아래와 같은 요구를 합니다

하나 --- 강위원은 반성문을 제출하고 (제출 시한: 8월 27일 오후 3시까지) 성평등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참고 : 한국성폭력상담소 www.sisters.or.kr(02)338-2890/2,

하나 --- 강위원은 즉각 운동단체의 모든 직책을 내놓고 위의 사항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 --- 가해자 강위원이 위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 그 다음 일은 <강위원 성희롱 사건 대책모임>에서 총회합니다.

### ▶ 8월 27일(수요일)

'강위원 성희롱 사건 대책모임'에서(모임 구성원 중 타씨) 오후 3시 30분 가해자 강위원에게 전화를 하였다. 강위원은 이 시각까지 메일을 열어 보지 않았다. 처음에 강위원 후배가 전화를 받았고, 타씨는 강위원 후배에게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기겨 강위원에게 전화를 하라고 전했다. 잠시 뒤 강위원에게 전화가 왔고 타씨는 "보낸 메일이 있으니 내용을 확인한 뒤 전화 해달라"고 하자, 강위원은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그 뒤 전혀 답신이 없었다.

### ▶ 8월 30일(토요일) - 8월 31일(일요일)

피해자는 피해자가 속한 운동단체에서 진행하는 수련회에 참석하였다. 우연하게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운동권의 선배님들, 카씨와 파씨, 두 분을 만났고 피해자는 선배님들께 '강위원 성희롱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카씨는 피해자가 '강위원 성희롱 사건'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낄 때부터 꾸준히 이야기를 해오던 사이이며, 파씨는 그 날 처음 피해자에게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파씨는 피해자에게 "강위원을 만나볼 터이니 앞으로 2주(9월1일 - 9월 14일)의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강위원 성희롱 사건'을 공론화 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는 확고하며, 다만 선배를 믿고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라 밝혔다.

### ▶ 9월 15일(월요일)

강위원과 연락한다고 했던 파씨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아, 피해자는 오후에 파씨에게 전화하였으나 파씨는 "강위원에게 여러번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 9월 23일(화요일) 강위원에게서 온 메일 전문 -> 이 부분도 난리의 제안처럼 사건일지와 해결일지를 어떻게 어디까지 경계하여 분리할 것인가 논의하여 보충해야 할 듯.

2003.9.22

인간적 최선을 다해야 할 사람이었다.

핵심은, 견디기 힘든 모욕이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폭력이었다.

1.모든 축력의 한 자락에는 늘 슬이 있었다

폭음과 폭주는 물론이고 진보와 인연이 없는 모든 생활문화를 바꿔야한다.

2.이미 사회적으로 잘못 학습된 섬의식을 새로운 학습 기회를 통해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 계획을 세워야한다.

3.원칙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단체활동을 중단하고

침묵수업을 받아야 한다.

운동가로서 정직하게 자신을 점검하고 모든 문제를 정도에 맞게 풀기 위해 노력하자.

무엇을 잃을 것인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운동가로서 어떤 자세로 더 원칙적이고

겸허하게 활동할 것인가를 고민하자.

\* 비대위 결정의 시점이나 내용적 부분들은, 나에게 따로 내용을 주면 정리하겠습니다. 아니면 민정이나 난리가 할래~? ^^;

\* 정리하면서 느낀 점.

증언 모음에 일관성이 결여된 듯 보인다. 증언을 주제(?)별로 좀더 섬세하게 나누거나, 증언 혹은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강위원의 태도와 사고방식의 문제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야 할 듯. 이 지적이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

## 9. 가해자 강위원에 대한 비대위의 요구안 및 근거

10월 2일 가해자 면담에서 비대위는 피해자의 요구에 기초하여 가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요구안을 제시했다.

가해자는 비대위의 아래와 같은 요구에 대해 모두 수용했으며, 공개사과문은 10월 5일까지 비대위 메일을 통해 제출하기로 했고 피해자 접근금지 및 활동정지도 바로 실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위와 함께 가해자 스스로 '술을 마시지 말아야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었던만큼 스스로 술을 마시지 않는 것도 과제로 삼기로 하였다.

가해자 강위원에 대한 구체적인 비대위의 요구안과 그 근거를 자세히 서술한다.

### 1) 공식적인 공개 사과문 및 공개대자보

#### ① 공개 사과문

- 가해자의 공개 사과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해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무엇을 반성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반성지점(단지 가해사실이 잘못되었다는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언행과 사고에 대한 본질적인 반성) 서술

피해자와 피해자가 속한 단체에 대한 사과

운동사회 내 성희롱적인 문화를 조성해온 가해자로서의 반성

앞으로의 구체적인 혁신과제와 실천과제 및 계획

위 사항을 지킬 것에 대한 약속과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 대한 대책

- 공개 사과문은 1차적으로는 비대위, 2차적으로는 피해자가 검토한 후 불충분했을 때는 재작성을 요구한다.
- 공개 사과문의 내용이 피해자에게 전달하기에 부적합할때에는 비대위 차원으로 다시 재작성을 요구한다.

#### ② 공개 대자보

- 공개 대자보는 비대위가 작성한다.
- 공개 대자보는 사건경위, 사건에 대한 성격규정 및 문제점, 이제까지의 해결과정, 가해자 실명 공개 사과문, 이후 해결과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공개 대자보는 가해자의 공개 사과문과 함께 올린다.

③ 공개 사과문과 공개 대자보는 한중연, 전여대협, 양심수후원회, 보이지않는창살 등의 홈페이지를 비롯해, 학생운동단체, 민족민주운동단체, 여성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공개사과문과 공개대자보의 근거

첫째, 가해자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사과문을 공개함으로써 가해자에 의한 성희롱 제발을 방지하고, 가해자 스스로 더욱 책임성있게 반성을 하기 위함이다.

둘째, 운동사회 내 존재하는 성폭력적인 문화와 풍토를 개선하는 데 일조하기 위함이다. 이 사건은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 개인 사이에서 일어난 일로 치부할 수 없다. 모든 성폭력이 단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의 문제이듯이, 운동사회 내 성희롱 또한 운동사회에 만연해있는 성폭력적인 문화와 풍토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운동사회 내에서 공개함으로써 운동사회 공동의 문제로 풀어가야 한다는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셋째, 가해자는 학생운동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회운동에서는 진보적 인사로 통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학생운동단체, 민족민주운동단체, 여성단체 홈페이지에 공개사과문과 공개대자보를 올리기로 하였다.

넷째, 사건의 경위, 사건에 대한 성격규정 및 문제점, 이제까지의 해결과정, 가해자 실명 공개 사과문, 이후 해결과정 등 성희롱 사건의 해결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운동사회가 공유함으로써 운동사회 성폭력을 해결해나가는 정형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또 다른 운동사회 성폭력 피해자 및 잠재적 피해자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다.

## ② 활동 금지

- 가해자는 7년동안 일체의 운동활동을 금지하고, 충분한 반성을 하고 총화하여야 한다.

### 활동 금지의 근거

피해자는 가해자가 감옥에 있던 1997년부터 '동지적 믿음'과 '동지적 의리'를 다해 가해자의 감옥생활을 챙겨주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으며, 가해자가 출소한 이후에도 피해자는 그런 신뢰와 동지애에 기초해 가해자를 따뜻하게 대해왔다.

그러나 가해자는 피해자의 그런 신뢰와 동지애를 되려 악용하여 성희롱을 가해왔으며, 피해자의 해결노력을 수차례 차단해왔다.

가해자는 그동안 피해자가 동지애적 의지로 가해자의 감옥생활을 챙겨주었던 그 모든 시간과 노력을 강위원이라는 '남자'를 만나기 위한 것으로 치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는 가해자를 알고 지내온 7년간의 시간들이 그 자체로 고통으로 각인되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 비대위는 가해자가 이후 7년이라는 시간동안 운동활동을 금지해야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 ③ 가해자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 한국성폭력상담소 정확한 시기와 내용은 비대위와 상담소의 논의 및 조정 이후 공지.

## ④ 실천활동

- 가해자 재교육과 함께 실천활동을 통해 자신의 가해사실을 구체적으로 반성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 동안 구체적인 실천활동을 진행한다.

- 구체적인 실천활동은 추후 공지. 실천활동은 서울 혹은 광주에서 진행한다.

- 기간은 3개월 (이 3개월 동안 활동 금지, 실천활동, 학습이 병행되어야 한다)

## ⑤ 학습

- 구체적인 커리 추후 제출
- 기간은 3개월

### 3개월 동안의 가해자재교육프로그램, 실천활동, 학습의 근거

비대위의 활동 원칙에서 밝혔듯이 비대위가 근본적으로 가해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성찰과 근본적인 자기 반성, 그리고 성폭력적인 사고와 언행의 혁신이다. 가해자재교육프로그램과 실천활동, 학습은 그런 원칙에 근거하여 제시하게 된 요구안이다. 비록 3개월이라는 기간으로 제시했지만, 가해자는 더 깊이있는 학습을 계속해나가야한다.

## ⑥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 피해자의 주요 활동 근거지 및 거주지에는 가해자의 통행을 금지한다.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명시한 몇 곳을 포함)
- 피해자의 전화나 메일 등으로 일체의 연락을 하지 않는다.
- 피해자가 있는 곳에 가해자가 나타나면, 가해자는 무조건 피해자를 피해 마주치지 않도록 해야한다.

###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의 근거

피해자는 성희롱 피해 사실로부터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으며, 피해의 고통을 다시금 상기당하지 않고 다시금 고통에 빠지지 않을 권리가 있다.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성희롱 가해를 당하면서, 그리고 해결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면서 그동안 성희롱 피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가해자로 인해 2차, 3차의 가해를 받아왔다. 가해자와 마주치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성희롱 피해의 고통을 상기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는 피해자가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기본권이자 생존권이다.

또한 대책모임이 구성되고 대책모임에서 가해자에게 공식메일을 보낸 후에도 가해자는 대책모임의 공식메일에는 일체 답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온정주의에 호소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는 더욱 필요하다.

## ⑦ 정기적인 확인

⑥ 가해자에 대한 제면담(총화)

- 가해자가 공개사과 이후 일정시간(3개월)을 두고 위의 제면과정(가해자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실천활동, 학습 등)을 진행한 후, 가해자를 제면담한다.
- 가해자 제면담을 하기 전에 먼저 가해자가 그간의 과정을 통해 어떻게 느끼고, 반성했으며, 재교육했는지에 대해 문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 가해자가 제출한 문서는 웹상에 올린다. 공개대자보를 올렸던 홈페이지들에 올리는 것으로 한다.

가해자 제면담의 근거

비대위가 성희롱 사건을 공개하고자 했던 것은 한번 사건을 터트려 세상을 놀라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누차 말했듯이 가해자의 관점과 언행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데 주목적이 있다.

가해자가 3개월 동안 재교육 프로그램과 실천활동, 학습을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가해자가 성희롱 가해사실에 대한 충분한 반성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큼 재교육되었는지를 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비대위는 가해자를 제면담하고자 하였다.

또한 처음에 성희롱 사건을 웹상에서 공개할 때 '이런 사건이 있었다'를 말하고자함이 아니었기 때문에, 운동사회 전체가 가해자가 어떻게 반성하는지 그 과정과 내용을 알 필요가 있으며, 운동사회 성희롱 사건을 어떻게 풀어야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해결하는 입장에 서기 위해 가해자가 작성하는 제면담 문서를 웹상에 다시 공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가해자 면담 보고

면담 일시 : 2003년 10월 2일 오후 1시 ~ 3시 30분경

참석자 : 비대위1, 비대위2, 강위원

가해자 면담에서 비대위는 가해자가 스스로의 가해 사실을 어떻게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우선 가해자의 말을 듣고자 했다. 그리고 비대위는 가해자의 발언에서 지적할 부분에 대한 즉각적인 문제 제기와 몇가지 질문을 했으며, 이 성희롱 사건을 비대위가 어떤 원칙과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얘기하는 과정이 있었다.

비록 면담의 주제에서 벗어나는 내용도 있지만, 면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대화했던 순서대로 정리하기로 한다. 단, 약간의 상황설명이나 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석을 덧붙인다.

가해자 면담 대화록

강위원 : 이런 일로 만나게 되어 죄송하다.

비대위2 : 마찬가지로 이런 일로 만나게 된 것이 안타깝다. 우선 '강위원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비대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다. 이 사건을 해결해오는 과정에서 '강위원 성희롱 사건 대책모임'(이하 '대책모임')이 구성이 되었고 강위원씨에게 메일을 보냈지만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피해자가 전여대협에 이 사건을 신고해왔으며, 전여대협을 비롯해 대책모임 구성원 등 여러 사람들로 비대위가 구성되었다.

비대위는 강위원씨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그래서 우선 강위원씨의 얘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어떤 사건인지는 알고 있을거라 생각한다. 그동안 강위원씨가 피해자에게 해왔던 발언들과 행동들에 대해 강위원씨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강위원 : 대책모임이 있는지 모르다가 '메일을 확인해보라'는 대책모임 사람의 전화를 받고 나서 메일을 보게 되었다.<sup>1)</sup>

비대위1 : 대책모임에서는 문자도 보냈다. 문자는 못 받았는가?

강위원 : 문자는 못 받았다.

비대위1 : 대책모임은 메일을 보내고 나서 전화도 했고 문자도 보냈지만, 강위원씨가 메일을 본 후에도 강위원씨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대책모임을 피한 것은 아니었는가?

강위원 : 당시에는 목포지역에 구속자가 있어 목포교도소로 내려갔었으며, 피한 것은 아니었다. 메일을 확인하고는 굉장히 당황했었다. 메일 확인한 후에 다른 곳에 메일의 내용을 옮겼는데, 대책모임 메일주소는 못 옮겨서 대책모임 메일주소를 몰랐다. 그래서 전날 나에게 전화가 왔던 번호로 다시 전화를 했었는데 공중전화였는지 연락이 안되더라.

그래서 피해자에게 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했었다. '나의 잘못을 잘 모르겠다' '잘못을 잘 알기 위해서는 나도 좀 공부할 필요가 없겠는가' 등등의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메일을 보냈었다. 스스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 공부와 상담 등이 필요하므로 시간을 달라고 했다.

■ 피해자는 8월 18일 이후 가해자에게 연락을 한 적이 없고, 가해자는 8월 20일 반성문 이후 9월 20일에 피해자 메일에 연락함. 즉 대책모임 연락(8월 27일 경)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연락한 적이 없음(주석으로 붙여도 좋음. - 사건순서를 파악 못하는 가해자 - 사건일지 참조)

마음 정리를 하고 상담을 했다. 아는 선배가 있는 단체에 가서 선배와 상담을 했다.

비대위1 : 성희롱 관련한 상담을 하는 단체인가? 시기가 언제쯤인가?

강위원 : 성희롱 상담을 하는 단체는 아니고 아는 선배가 있는 단체였다. 시기는 9월말에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보

내기 전이었다.

비대위2 : 9월 중순경인가?

강위원 : 그 정도 되는 것 같다.

나는 강연을 다니면서 여성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다. 특히 새대기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에서는 학습목표 첫 번째로 여성에 대한 학습을 할 것을 얘기했었다.

육중에서 나를 찾아온 IS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와 토론을 했었다. IS 친구와 경주교도소에서 함께 부역함. 육중에서 나는 이익기일 것임(자유의 말인 맞음 '감옥에서 IS 친구를 만났는데'로 하면 될것같음) IS에서는 사귀고 헤어지는 것에 대해 자유롭지만, 돈을 주고 여자를 사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다고 했다. 돈을 주고 여자를 사면 조직에서 계명된다고 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보다 오히려 더 원칙적이구나,생각했다. 전에 후배한테서 들었는데 선배가 단란주점에 데리고 가서 도우미를 불러주었다는 말에 놀랐었다.) NL에서는 연애총화를 다 하지만 경작 선배들이 후배들 데리고 단란주점 같은 곳에 가는 모습이 떠올랐고 반성이 되었다.

그 친구(IS)가 출소한 이후 나에게 책을 보내왔고, 섹스북이라는 책을 읽었다. 책을 읽으면서 모르는 것을 많이 배웠다.

나는 독신으로 살려고 생각해왔는데, 독신으로서 살려면 공부할 해야한다고 생각했고 학습목표 1호로 여성권 학습을 생각해왔었다. 섹스북이라는 책을 읽었지만, '성문제를 몸의 문제로만 보는 것 같다'는 비판을 예전에 받은 적도 있었다.

선배와 상담하면서 여러 얘기를 들었다. '성폭력은 당사자가 어떻게 느끼는가의 문제이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다. 또 그 선배가 '내가 한 행동은 성적인 문제를 떠나 당사자에게 굉장한 모욕이었던 것이다'라고 하더라.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반성문'이란 표현을 처음 쓰게 되었다.

그동안 참 힘들어서 조언을 구하려 했다. 하지만 조언을 구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책모임과 연락해서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죽음도 생각했다. 그래서 손목을 바라보기도 했다. 아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더니 지금 그런말을 하는데 옳지 않다. 죽는 것도 이 일을 잘 마무리한 다음의 일이다.-라는 요지의 말을 했는데 정확하지는 않음. 하지만 이 부분은 꼭 들어가야 할 것 같아서.)

비대위1 : 피해자에게 반성문 써서 보내던 것을 왜 대책모임 메일로는 보내지 않았는지 이유를 알고 싶다.<sup>2)</sup>

강위원 :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책모임 메일주소를 몰랐다. 내 메일을 국정원에서 종종 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메일이 오면 항상 메일을 지우고 다른 곳으로 옮긴다. 대책모임 메일주소는 대책모임 사람들 통해 알긴 했었다.

개인적으로 쓴 걸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중단했었다.

개인적으로 고민들이 안 풀이졌고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글을 쓰거나 행동하는 것이 무서워졌다.

그리고 제대로 된 반성문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다시 반성문을 구체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비대위 전화를 받았다.

비대위 전화를 안받았던 것은 한중련 정치수배해제 관련해서 언론사 등 여러군데서 전화가 많이 와서 잘 안받는 것 때문이었다.

비대위1 : (지금까지 강위원씨가 한 언행은 모두) 강위원씨가 자기마음대로 정한 것이다. '반성문'이란 이름으로 보낸 메일도, 대책모임으로 반성문을 보내지 않은 것도, 시기를 정한 것도 모두 강위원씨가 자기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닌가? 자기중심적이라고 생각한다. (강위원씨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우리는 언제까지도 강위원씨 쪽에서 무슨 답이 오기를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가, 강위원씨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다.)

강위원 : 그렇다.

비대위1 : (우리 강위원씨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아주 많은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한다. '과씨'를 통해 2주간의 시간을 준 것도 그런 의미였다. '과씨'가 처음 3주의 시간을 원할때 우리는 원했지만 그렇게 했다. 하지만 강위원씨가 그런 기회를 모두 정면했고 우리의 노력을 허사로 만들었다. 그렇지 않은가? 그럼 '과씨'가 전화했던건 어떻게 된

2 강위원은 9월 20일과 9월 22일 피해자 개인 메일로 '반성문1'과 '반성문2'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와 대책모임은 피해자 개인메일이 아닌 대책모임 메일로 보낼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 이후로 강위원으로부터 메일은 더 이상 오지 않았다.

1 2003. 8. 26 대책모임에서는 정위원에게 메일을 보내, 대책모임의 몇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대책모임의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건일지 참조.



것인가? (← 정확한 질문이 생각이 안남)

강위원 : 9월초 파씨의 연락을 받았을 때에는 파씨가 나의 성희롱 사건 때문에 전화하지 모르고 연락을 안받았었다. 같이 설악산에 가기로 약속되어있었는데 나의 상황은 설악산에 갈 상황이 안되었기 때문이었다.(그런데 9월 15일 김준배 열사 추모식(?)에 다녀오면서 '파씨'의 전화를 받았다. 그 때 쯤이면 설악산에 다녀왔을거라고 생각하곤 전화를 받았다. '파씨'가 이 문제를 이미 알고 있음을 알고 모두가 알고 있으나, 15일 동안 나만 방안에 있었다고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생각했고 그 후 어떻게 해야할지 여기저기 물어보기 시작한 것 같다) 그러나 이후 연락이 다시 닿았고, 반성문을 쓰라는 파씨에게 반성문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 (← 다시 정리 필요)

강위원 : 잘못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다. 지금도 정확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할 말이 없다. 그 당시에는 그것을 잘 몰랐다. 내가 그 친구가 되어보자는 생각을 했다. 예시당초에는 인정할 수 없었다. 그래서 '피해자도 정말 성희롱 당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최선을 다했어야할 친구인데...

강위원 : 내가 '남녀문제'로 오해를 한 것 같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면회를 자주 왔다. 처음에 면회를 자주 오길래 부담스러웠다. 당시엔 면회를 자주 오거나 편지를 보내는 후배들도 있었고, 감옥 뒷마라지들 사기가 하겠다고 나서는 후배도 있었다. 그들이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그 후배들에게 모질게 대하거나 면회오지 말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모욕적인 얘기도 많이 했었다.

하지만 감옥에 같이 있던 선생님과 얘기하다가 그 선생님이 '니가 그럴 권리가 어디 있냐'고 하더라. 98년 말엔가에 피해자가 면회를 왔을 때 당시 나는 부담스럽다는 듯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피해자가 나의 그런 말에 대해 문제해했다.(98년 10월 말경이다. 피해자가 경주교도소에 면회를 갔었고, 강위원이 부담스럽다는 말을 했다 "편지만으로도 힘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담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좀 뜻밖이었지만, 애초 당시 강위원 동지에게 불편함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알겠노라" 대답했다. 절전을 한 그날 밤, 강위원은 피해자에게 편지를 썼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특별한 사람이다' 등등의 내용으로, 김남중선생님께 연락해서 중간다리 역할을 해달라는 말도 이날 했다.)

(← 이 중간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잘 생각이 안남)

강위원 : 출소하고나서 해야할 일이 많았고 바쁘게 돌아다녔다. 바빠서 피해자에게도 별로 연락을 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형, 나오니 연락도 없고...'라고 털하기도 해 서운해하는 것 같았다. 출소 후 활동하면서 정치적으로 비난을 받고 힘들었다. 그러다보니 피해자 생각도 나더라. 그러다가 어느 순간 관계가 풀해졌다는 느낌이 들었다. 시기는... 대략 2001년쯤이었던 것 같다. '내가 피해자를 오해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피해자한테 위로를 많이 받았다.

비대위1 : '남녀문제'로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  
강위원 : 그렇다. (← 그러고나서 무슨 얘기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잘 생각이 안남)  
비대위1 : 강위원씨는 피해자의 모든 좌절을 강위원씨를 만나기 위한 구실로 생각하고 그런 피해자에게 말할 수 없이 크나큰 모욕이었다. 피해자는 부모님의 뒷바라지로 공부하고 열심히 작업했 왔는데...어떻게 훔치지 않았는가.

강위원 : 피해자가 개혁당 최용철 성희롱 사건을 얘기했을 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나의 의식수준에서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다.

비대위1 : 그 날 강위원씨는 피해자에게 욕을 했다.  
강위원 : 그렇다. 피해자가 개혁당 최용철 성희롱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운동사회가 성희롱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를 했다. 그때에는 내가 정치적 공격을 많이 받고 있었던 때였고, 같이 술마시고 있던 수배중이었던 후배도 그랬다. 그래서 나는 '그만해라'고 얘기했었고, 피해자는 계속 얘기하면서 '운동사회 성폭력으로 부터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으며, 다들 조심해야한다'는 얘기를 했다. 그래서 나는 결국 피해자에게 욕을 했고, '동지에 대해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때엔 피해자가 계속 얘기해 '애가 혹은 그 성희롱 사건의 당사자인가' 하는 오해도 했었다. (← 얘기가 좀 더 있었던 것 같은데...)(평소 운동권 주변을 태도는 사람들의 운동권 욕을 하고 다니는 것에 화가 많이 나 있었는데, 피해자가 운동권을 욕하는 것 같았다.)

3 '피해자'를 지칭

비대위1 : 피해자가 운동권을 욕한 것이 결코 아니잖은가?  
강위원 : 그때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오해가 풀렸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수배자 후배와 \*\*가 함께 얘기도 했고...

비대위1 : 지난 4월달에 피해자 집에서 성희롱을 한 사실은 기억하는가?  
강위원 : 그 날 집에 간 것도 잘 기억이 안난다. 하지만 성희롱을 한 것은 기억이 난다.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했던 것은 기억한다.

비대위1 : 왜 그랬는가?  
강위원 : 그 날은 한총련 정 의장이 당선된 날이었고 술을 마시면서 기분이 좋았던 날이었다. 피해자도 자기집에 가자고 했고 피해자와 다른 사람들과도 팔짱을 끼고 피해자 집으로 갔었다.

비대위2 : 강위원씨는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인터넷 검색을 하겠다며 컴퓨터를 켜달라고 했고, 컴퓨터를 켜는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그 사실은 기억이 나는가?  
강위원 : 아... 피해자 집에서 전화를 받고 나왔었는데, 밤을 새고 나왔는지 자다일어나서 나왔는지 잘 기억이 안난다. 하지만 그랬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비대위1 : 강위원씨, 우리가 모든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강위원 : 그렇다.

비대위1 : 우리가 너무 자세히 알고 있어서 당황스러우니까?  
강위원 : ... 당황스럽진 않다.

비대위1 : 지난 5월경 강위원씨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묻는 차씨에게 강위원씨는 '이미 6개월 전에 충분히 말했다'고 했는데, 그 '6개월 전'이라는 것은 언제를 말하는 것인가?  
(← 이에 대한 강위원의 답변은 제와 강자연씨가 이해하는 것이 다른 것 같아요. 강자연님께서 정리해주시어요.)  
역시 나도 기억이 많이 안나서요. 나중에 만나서 얘기를 해야 할 듯.

비대위1 : 그렇게 주위 사람의 시선을 신경쓰고, '남녀문제'라고 생각했으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왜 그랬는가?  
강위원 : ... 그래도 되겠거니 생각했다.

비대위1 : 그렇게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에 대해 신경을 썼으면서 왜 피해자에게 깍지를 끼고 만지고 그랬는지 이해가 안된다.(← 전개영씨 결혼식에 대한 얘기도 했었나요? 헛갈리는군요.)  
강위원 : ... (언제?)

비대위1 : 전개영씨 결혼식입니다.  
강위원 : 술집에서였는가?

비대위2 : 아니, 밤집이다.  
비대위1 : 자신은 남의 시선을 그토록 신경쓰면서 피해자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선 관심도 없었던,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강위원 : .....

비대위2 : 강위원씨는 자신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해 '스토커'라는 발언을 하고 다녔던 것으로 하는데, 왜 그랬는가?  
강위원 : 예?

비대위2 : 기억이 안나는가? 강위원씨 지인에게서도 피해자를 두고 '스토커'라고 했다는 것을 들었다. 스토커'라는 말을 썼는지 잘 모르겠다. '주위를 배회했다'는 라는 말이었던 것 같다. 근데 결론적으로 같은 말이겠지요.  
강위원 : ...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다닌 것은 아니었다.

비대위2 : 그리고 연세대에서 피해자의 절친한 친구들에게도 강위원씨가 "(피해자)는 스토커야" "(피해자)는 나를 괴롭게하는 마녀야"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강위원 : ...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안난다.

비대위2 : 피해자의 절친한 친구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피해자에게 인간적 모욕이다.

강위원씨가 피해자를 두고 '피해자가 나를 좋아한다' '스트커다'라고 여러 사람들에게 말한 것은, 자신의 가해행위를 정당화하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세우기 위해 피해자를 이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는가?

강위원 : ..... 그렇다.

비대위2 : 강위원씨는 계속 '힘들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물론 강위원씨가 쉽지 않았을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더 힘들었던 사람은 바로 피해자이며, 피해자를 힘들게 한 당사자는 강위원씨이다. 그동안 동지애적 의리를 가지고 강위원씨를 챙겨줬는데 피해자는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러니 힘들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피해자를 먼저 생각해보라. 그리고 적어도 우리 앞에서는 힘들었다는 얘기를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강위원씨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것 같다. 이 사건을 '남녀문제'로 생각한 것도 그렇고, 이 사건을 해결해오는 과정에서도 그렇다. 특히 피해자와 대폭모임이 강위원씨의 답을 기다릴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 아닌가? 오로지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계획하다보니, 시간이 끌어지면서 피해자는 더욱 힘들게 된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강위원 : 그렇다고 생각한다. 반성을 해야겠다.

비대위2 : 강위원씨는 평소의 관점과 행동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 사건 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도 누군가를 통해 알고 있다.

강위원 : 아... 그때는 술을 많이 먹어서 기억이 안났는데 이후에 들었다.

비대위1 : 강위원씨의 성회통에는 항상 술이 있었다. 그렇다면 술을 그렇게 마시지 말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

강위원 : 그렇다. 나도 술을 마시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비대위1 : 지난번 강위원씨는 사씨4를 만났을 때 4월 피해자 집에서의 일을 두고 '피해자는 더 원했지만 내가 그냥 자라고 내보냈다'고 했었는데, 그건 무슨 말인가?

강위원 : 아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나는 '내가 더 할 수도 있었는데 피해자가 그러지 말라고 해서 그만두었다'고 말할 것이었다. 사씨가 잘못 들은 것이다.5

비대위2 : 사씨는 강위원씨와 만나고 난 이후 무력감과 좌절을 느꼈다. 강위원씨는 성회통 사건에 대해 얘기하러 만난 사씨에게도 이름테면 2차 성회통을 한 거 아닌가?

강위원 : 예?

비대위2 : 강위원씨는 사씨와 함께 간 노래방에서 사씨의 작지를 끼고 손을 만졌다. 손을 뺀 사씨에게 강위원씨는 '이것도 성회통이라고 하겠네'라고 말하기도 했다.

강위원 : 그렇지 않았다. 사씨를 만났을 때 나는 겁먹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사씨가 어떻게든 잘 풀이해보자고 얘기했고, 사씨가 잘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고마웠다. 오히려 노래방에서는 사씨가 먼저 나에게 어깨동무를 했다. 나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었다. (← 보충 필요)여기도 만나서 보충해요.

강위원 : 스스로 감당이 안됐다. 당시에는 억울했다.

'피해자도 정말 성회통을 당했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던 건 뒤투수를 맞은 기분이기도 했고, 나에게 잘한 피해자한테 내가 그러면 안되는데, 왜 이런 관계가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였다.

4 피해자의 지인, 강위원에게 성회통 가해 사실을 인지도시키고 반성문을 제안하기 위해 만났다.  
5 이 부분은 예전에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통화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사씨가 잘못 들은 것'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다. 하지만 10월 2일 이후 다시금 확인해본 결과, 강위원의 말은 사실과 달랐다. 사씨의 증언에 따르면, 강위원은 7월 31일 당시 "피해자는 더 원했고 나도 더 할 수 있었지만 내가 그냥 자라고 내보냈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비대위1 : 강위원씨는 당시에 사씨에게 '앞으로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살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해가 안된다. 강위원씨는 당시에 다 인정하지 못했고 억울하다고 생각했으면서 어떻게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살지 않겠다'는 말을 했는가? 강위원씨에게 운동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기에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가?

강위원 :

비대위1 : (← 강위원에 대해 오만한 사람이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잘 기억이 안나요)(강위원씨는 탄탄대로를 달려 왔는가? 그래서인가, 강위원씨는 누군가의 지적이나 충고, 야단을 맞았던 적이 없는 사람 같다. 강위원씨를 둘러싼 운동권 문화의 영향인지, 성장과정에서 형성된 것인지 아니면 그 모두인자 모르지만 강위원씨의 그간의 연행을 보면 너무나도 오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강위원 : (이부분에서 도덕적 추궁 어쩌구 저쩌구 하는 얘기를 함)

강위원 : 반성문 관련 .....

절박하게 쓰고 싶었다. 그리고 내가 보낸 메일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답이 올 줄 알았다. 또 대폭모임에 피해자도 들어가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만 얘기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다.

비대위2 : 8월 20일 메일과 9월 20일 메일에 대한 얘기

강위원 : 지금 심정은... 변명이나 해명 수준은 아니다. 스스로 질병이라고 규정한다.

운동에 대한 문제는... 스스로에게 운동의 철학과 신념이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왜 나의 행동에 대해 사고를 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보니 스스로 오만했다. 나는 살아오면서 스스로 도덕적 문제로 추궁당한 적이 거의 없었다. 어렸을 적 학교에서 모욕을 한번 당해본 이후로 한번도 모욕당해보지도 않았다.

지금은 앞으로를 살아가려면 이런 공부를 해야하는가, 아니면 이런 단체에서 활동해야하는가... 그런 생각들도 든다. 어쨌든 비대위가 섰으니...

비대위1 : 사람이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비대위는 강위원씨를 매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알지 않는가? 이제까지의 모든 것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자.

강위원 : 알고 있다. 그래서 비대위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고자 왔다.

그동안 아는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들었는데 도움을 받은 경우도 있었지만 도움이 별로 안된 경우도 있었다. 내가 이렇게 문제를 풀이하려고 한다6는 얘기를 했을 때 몇몇 후배들은 '형, 왜 약해질려고 하는가'라는 말을 했었다. 그런 후배들의 말은 도움이 전혀 안되었다.

강위원 : 지금은 좀 무섭다. 왜냐면 이후에도 내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최근에 처음으로 결혼을 생각했다. 학교도 그만두고 단체들 연락도 안받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연세도 있고 해서 결혼을 해야겠구나 생각했다. 그런 생각을 하다보니 살다가 이런 문제를 부인한데도 할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 그래서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이제까지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살아왔던 것 같다.

강연을 다니면서 새내기들한테 그런 얘기도 했고, 광주에서 사업을 벌이려고 투자도 해놓았는데...

현재 내 수준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있다.

오늘 전역대협 간부가 나온 것을 보고 좀 놀랐다.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아서 전역대협에 상담을 할까 생각도 했었다.

그동안 강연을 다니면서 새내기들한테 어성 관련 얘기도 했었으니 이 사건이 공개되면 후배들에게 영향도 많겠구나

6 당시 정황상 이 말은 강위원이 얘기했던 '비대위가 요구하는대로'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나 생각하면서 정치적 계산도 했었다.

97년 이석치사건 관련 돈문제 만큼은 정리해야하지 않을까 생각도 했다. 하지만 대책모임의 연락을 받은 이후로는 이 일도 위임을 해주고 정리해야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비대위1 : 체면이든 정치적 계산이든 모두 다 버려야 강위원씨가 산다. 그것이 새 삶을 사는 것이다.

강위원 : 모든 것을 비대위가 요구하는대로 하겠다.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비대위가 요구하는대로 하려고 마음먹고 이 자리에 왔다.

비대위2 : 그렇다면 비대위의 요구안을 제시하겠다. 요구안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강위원씨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하니, 강위원씨가 한 성회통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바를 얘기해주겠다.

강위원 : 좋다.

비대위2 : 아까 얘기하는 과정에서 몇가지를 얘기했으니 그와 함께 몇가지를 더 얘기하겠다. 강위원씨가 한 성회통은, 친밀함을 이용한 성회통이며 장기간에 걸친 언어적, 신체적, 정신적 성회통이다.

특히 강위원씨는 학생운동사회에 영향력있는 사람이고, 사회운동에서는 진보적 인사로 통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으로써 스스로 운동사회에 성폭력적인 문화를 조성했다고 볼 수 있다. 강위원씨 스스로 얘기했던 것처럼 도덕적 추궁을 당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에서도 드러나듯이 운동사회 내 권력의 문제이기도 하다. 게다가 피해자가 그동안 강위원씨에게 동지적 의지를 다해 감옥생활을 담보했던 것 등을 강위원이라는 '남자'를 만나기 위한 것으로 치부했다. 또한 스스로 말했듯 강위원씨가 평소 '여성'에 대해 진보적이거나 진보적이라고 하는 사담임을 스스로 얘기하고 다녔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스토커' 발언에 대한 문제는 아까 얘기한대로 사건을 해결하고 강위원씨를 바꿔보려고 했던 피해자를 매도하고 피해자의 해결노력을 차단한 것이었다.

강위원 : 네. (← 여기서 강위원이 무슨 말을 해서 제 말이 끊겼었는데요... 기억이 잘 안나는군요)

강위원 :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하는가?

비대위2 : 피해자와 비대위쪽 요구안을 필하겠다. 필하기 전에 여러 가지어니 강위원씨가 직접 좀 썼으면 좋겠는데...

강위원 : 알겠다.

비대위2 : 첫 번째로 강위원씨가 공식적인 공개 사과문을 비대위에 제출했으면 한다. 공개사과문은 단순히 '잘못했다, 반성한다'의 내용이 아니라 무엇을 잘못했으며 무엇을 반성하는지 본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간 사과문이 있으면 한다.

강위원 : ... 정확히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할지 잘 모르겠다. 어떤 부분이 들어가야할지 좀 도와달라.

비대위2 : 사과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다. 가해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무엇을 반성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반성지점, 그러니까 말하자면 단지 가해사실이 잘못되었다는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언행과 사고에 대한 본질적인 반성이 서술되었을 좋겠다. 그리고 피해자와 피해자가 속한 단체에 대한 사과, 운동사회 내 성회통적인 문화를 조성해온 가해자로서의 반성, 앞으로의 구체적인 혁신과제와 실천과제 및 계획, 구체적인 혁신과제와 계획에 대해서는 사과문에 대한 얘기 이후에 다시 얘기를 하겠다. 그리고 위 사항을 지킬 것에 대한 약속과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대한 대책에 대한 얘기도 들어가야할거라고 생각한다.

강위원 : 알겠다. 공개사과문은 어디로 보내면 되는가?

비대위2 : 공개사과문은 비대위 메일로 보내달라. 비대위 메일로 보내면 1차적으로는 피해자, 2차적으로는 비대위가 검토한 후에 불충분했을 때에는 제작성을 요구하겠다.

강위원 : 예전에 내가 보낸 반성문 메일이 그랬듯이, 이번에 내가 보낼 사과문이 피해자에게 다시 상처를 주면 어떻게 하는가?

비대위2 : 그렇다면 일단 비대위가 먼저 검토하겠다. 비대위가 검토하면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겠다 싶은 내용이면 피해자에게 가기 전에 비대위 선에서 제작성을 요구하겠다.

강위원 : 알겠다.

비대위2 : 공개사과문은, 오늘이 2일이니까... 4일까지 보내달라.

강위원 : 시간이 좀더 있으면 좋겠다. 서울에서는 차분히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내려가서 차분히 정리하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비대위2 : 피해자는 이제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다. 더 늦출 수는 없으니 그럼 10월 5일까지 쓰는 것으로 하자.

강위원 : 알겠다.

비대위2 : 이 성회통 사건은 운동사회 내 성폭력의 문제인만큼 여러 운동단체 홈페이지에 올렸으면 한다. 학생운동단체, 여성운동단체, 민족민주운동단체 홈페이지의 목록을 우리가 정리해서 강위원씨에게 보내겠다. 그럼 비대위에서 작성할 공개대자보 안에도 공개사과문이 들어갈 것이지만, 강위원씨의 이름으로 직접 그 홈페이지들에 공개사과문을 올렸으면 좋겠다.

강위원 : ... 알겠다.

비대위1 : 혹시 공개가 안될거라고 생각하고 왔는가?

강위원 : 아니다.(이렇게 생각하고 왔다.) 공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왔다. 비대위가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민하고 왔다.

비대위2 :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피해자에게 접근금지도 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요구안이다. 피해자는 강위원씨와 마주치는 것조차 원치 않으며, 강위원이란 이름조차 떠올리지 않기를 원한다.

강위원 : 접근금지도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비대위2 : 피해자의 주요 활동 근거지 및 거주지에는 강위원씨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피해자가 주로 가는 몇 곳(3곳 정도)과 피해자가 속한 단체에 통행을 금했으면 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전화나 메일 등으로 일체의 연락을 하지 않아야 한다. 또 피해자가 있는 곳에 강위원씨가 가게되면 혹은 마주치게 되면, 강위원씨는 무조건 피해자를 피해 마주치지 않도록 하자.

강위원 : 피해자가 속한 단체라면, 그 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해도 가면 안되는 것인가?

비대위2 : 그렇다.

비대위1 : 그 단체에서 행사를 하면 피해자도 있을테니 마주치지 않기 위해 인가는 것으로 하자.

강위원 : 알았다.

비대위2 : 그 다음으로는 강위원씨가 운동활동을 정지했으면 하는 요구안이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기간은 7년이다. 피해자는 강위원씨의 성회통과 그간의 과정을 통해 강위원씨를 알고지냈던 지난 7년간의 시간이 그대로 고통으로 남아있다. 7년간 충분히 반성하면서 일체의 운동활동을 정지했으면 한다.

강위원 : 7년... 그렇게 해야지. 그렇다면 경제활동은 해도 되는 것인가?

비대위1 : 당연하다. 사람이 경제활동을 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경제활동을 통해(오히려 건강하) 도움을 하며 반성을 해나가면 더 좋을 것이다.

비대위2 : 그리고 3개월 동안 가해자 계교육 프로그램과 학습, 실천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가해자 계교육 프로그램은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받았으면 하는데, 구체적인 시기와 기간은 상담소와 비대위가 논의한 이후에 다시 얘기해주겠다. 학습은, 이런 일도 있었으니 평생 학습해야겠지만 3개월 동안은 학습을 하면서 느끼고 반성했으면 좋겠고, 비대위에서 학습커리를 정해 보내주겠다. 그리고 실천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가해사실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을 좋겠다. 실천활동은 봉사활동이나 자원활동이 있을 것 같은데, 비대위가 더 알아보고 연락하겠다.

강위원 : 실천활동은 꼭 서울에서 해야하는가?

비대위1 : 꼭 그럴 필요 없다. 광주에서도 알아보고 조정해보면 된다.

비대위2 : 위에 얘기했던 사항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강위원씨가 어떤 생각들을 해가고 있는지 정기적인 점검이나 면담을 통해 확인해나가도록 하자. 그렇게 앞에 얘기한 사항들을 3개월 동안 진행하고 나서 비대위와 제면담을 했으면 좋겠다. 제면담은, 강위원씨가 성회통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을 했는지, 어떤 관점의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얘기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제면담을 하기 전에 강위원씨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먼저 문서로 정리해서 적어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문서는 다시 앞에 얘기했던 홈페이지들에 올리는 것으로 하자. 또 올리

는 이유는, 단지 한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고 변화하는 과정을 다들 보고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강위원 : 아..... 네..

비대위2 : 그리고 강위원씨 스스로 술을 마시지 말아야겠다는 의사표현을 한만큼 스스로 술을 마시지 않는 것도 과제로 삼는 것이 어떤가?

강위원 : 그렇게 하겠다.

비대위2 : 혹시 요구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얘기하라.

강위원 : 반성문을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을지... 강연 다니면서 얘기했던 후배들에게도 미안하고...

(← 이런 말을 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음. 기억이 안나서 일단 적었음)

비대위1 : 강위원씨가 강연다니면서 한 여러 얘기를 때문에 이후 사과문이 공개되면 후배들이 강위원씨를 매우 위선적인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 당시 강위원씨의 여성관과 지금의 생각을 솔직하게 잘 정리하면 후배들에게 해명이라면 해명이 될 것이고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다. 강연 다닌 후배들 생각이 난다면, 그 한층런 후배들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도 공개사과문에 적어라.

강위원 : 그래도 되는가?

비대위2 : 당연히 된다.

강위원 : 일간지에 나면 가족들이 모두 알게 될텐데..

비대위2 : 일단 원상을 제외한 매체에는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무단 게재하거나 배포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그렇게 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런 사항들을 공개대자보에 명시할 생각이다.(보충필요)

비대위1 : 더 얘기하고 싶은거나 의문점 있으면 지금 하라. 걸리는 것이 있는가? (← 앞 뒤 말들이 생각 안나요)

강위원 : 걸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이제 편안하다. 다만.. 어머니가 걸린다. 어머니 연세도 많으신데,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형제들과의 사이도 안좋고, 어머니와 작은 형 말고는 나와 불화가 있다.

비대위1 :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는가?

강위원 : 79세이다. 이런 경우에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비대위2 : 사람마다 다양하다. 어머니에게 다 말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모르게 하는 경우도 있다.

비대위1 : 어머니께서는 강위원씨가 말씀을 안드리면 어머니가 모르시지 않겠는가. 어머니께서는 말씀드리지(알는게 좋겠다) 말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은가.

강위원 : 다른 가족들이 알면 어머니도 아시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감수할 수 밖에.. 감수하겠다.

비대위1 : 이야기가 대체로 잘 된 것 같다. 다행이다. 이만 정리하는 것으로 하자.

강위원 : 후배에게 이런 모습 보여 미안하다.

난리에게 선배로서 미안하다 뭐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꼭 넣었으면 합니다.

강위원이 뒤에 헛소리를 하고 다니고 참내!

(← 무슨 얘기를 하면서 자리를 정리했는지... 생각이 잘 안나는군요)

난리! 정말 수고했어. 파란 글씨는 자유가 교정한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밀줄-감자, 옆으로-자유